ISSN 1225-7214(Print) / e ISSN 2733-8622(Online)
DOI prefix 10.33949

여성연구

The Women's Studies

2024년 2호

연구논문

유자녀 여성 관리자의 무급노동시간이 일·가족 갈등 및 촉진에 미치는 영향: 근로시간 유연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박은정·최혜진·황경란

기혼 중년여성의 트로트가수 팬덤활동 참여와 생애 전환기 삶의 의미 탐구 — 임혜경·김혜원·조혜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KWDI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여성연구』는
성평등 및 여성정책 관련 기초이론 및 관련 이슈를 탐색하고,
현안해결에 기여할 연구성과를 소개하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입니다.

여성연구 학술지편집위원회

위원장 : 이택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 원 : 권수현 경상국립대학교
김남희 이화여자대학교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배호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백영경 제주대학교
신옥주 전북대학교
이재원 부경대학교
전 인 영남대학교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혜윤 강남대학교
최무현 상지대학교
최은영 충북대학교
한민경 경찰대학
허윤선 University of Wisconsin-Whitewater

· 본 학술지에 실린 논문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학술지편집위원회의 논문심사 기준에 의거 철저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습니다.
· 본 학술지에 실린 내용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여성연구

2024년 2호(통권 121호)

1. 유자녀 여성 관리자의 무급노동시간이 일·가족 갈등 및 촉진에 미치는 영향
: 근로시간 유연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은정·최혜진·황경란 ····· 5

2. 기혼 중년여성의 트로트가수 팬덤활동 참여와 생애 전환기 삶의 의미 탐구
임혜경·김혜원·조혜영 ····· 39

여성연구
The Women's Studies
2024. Vol. 121 No. 2 pp. 5~38
https://doi.org/10.33949/tws.2024.121.2.001

유자녀 여성 관리자의 무급노동시간이 일·가족 갈등 및 촉진에 미치는 영향 : 근로시간 유연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은정*·최혜진**·황경란***

초 록

본 연구는 가족 내 노동시간 분배의 젠더 간 불균형을 설명하는 젠더수행론 관점에서 무급노동시간, 근로시간 유연성, 일·가족 양립이라는 삼자의 관계성에 주목하였다. 유자녀 여성 관리자의 가사노동시간과 돌봄노동시간이 일·가족 갈등 및 촉진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근로시간 유연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022년 2기 여성 관리자 패널의 미성년 자녀를 둔 여성 관리자 922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사노동시간은 일·가족 갈등에 정적 영향을, 돌봄노동시간은 일·가족 촉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시간 유연성은 가사노동시간 및 돌봄노동시간과 일·가족 갈등의 관계를, 돌봄노동시간과 일·가족 촉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로시간 유연성이 높을수록 돌봄노동시간의 일·가족 갈등의 감소 효과와 일·가족 촉진의 증가 효과가 더 커졌다. 한편, 근로시간 유연성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시간의 일·가족 갈등 증가 효과는 더 감소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돌봄시간 확보를 위한 육아기 유연근무제 확대, 돌봄 친화적인 조직문화 확산, 남성의 자녀돌봄 지원 등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무급노동시간, 일·가족 갈등, 일·가족 촉진, 근로시간 유연성

* 주저자 :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ej.park@kicce.re.kr)
** 교신저자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전문위원(hyejin825@gmail.com)
*** 공동저자 : 충북여성재단 연구위원(hkl3213@gmail.com)

I. 서론

여성의 교육 수준이 상승하고 노동시장 참여가 크게 증가하면서 유급노동 참여에서 젠더 간 격차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여성의 유급노동 증가가 젠더 간 가족 내 무급노동 균형으로 온전히 이전되지 못했으며 무급노동시간은 여전히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다.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 2009)은 『끝나지 않은 혁명(Incomplete revolution)』에서 이러한 현상을 사회변화로 인해 가족과 여성 역할에 조용한 혁명이 일어났으나, 여전히 불평등이 존재하는 미완의 혁명으로 표현한 바 있다.

미완의 혁명 하에서 여성들은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의 이중고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 유자녀 여성 노동자들은 편중된 가사 및 돌봄노동시간에 더한 긴 노동시간으로 인해 일·가족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한국의 평균 근로시간은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장시간 근로를 하는 국가에 속한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OECD 회원국의 평균 연간 근로시간인 1,752시간보다 149시간 긴 1,901시간으로 나타났다(OECD, 2023). 한편, 2019년 생활시간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미취학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 여성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총 454.2분이고 이 중 가사 및 돌봄 시간 평균이 총 264.4분인 데 비해, 남성은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총 415.4분이며 가사 및 돌봄 시간은 총 102.8분으로 나타났다(이진숙, 2022). 즉, 여성과 남성의 유급노동시간 격차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총 노동시간이 길고 남성에 비해 여성의 가사 및 돌봄 시간이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시간 분배의 젠더 간 불균형이 여전히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노동시간 분배의 젠더 간 불균형에 관한 젠더수행론에 기초하여, 일·가족 양립의 고충을 겪는 유자녀 여성 노동자의 일·가족 양립에 초점을 두고 출발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젠더 간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상대적 자원론(relative resource), 가용시간론(time availability), 젠더수행론(gender display) 등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왔다. 이 중 자원을 둘러싼 가족 내 권력이나 한정된 시간 내에서 사용 가능한 시간을 중심으로 한 접근보다는 성별 노동시간 배분을 설명하는 핵심 요인으로 젠더를 내세운 젠더수행론이 젠더 간 노동시간 배분 격차의 양상을 보다 설득력 있게 해석한다. 남성은 유급노동시간의 증가가 무급노동시간의 감소로 이어지나, 여성은 유급노동시간의 증가만큼 무급노동시간이 감소하거나 남성과 무급노동시간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김소영·진미정, 2016; Craig & Powell,

2011). 즉, 유급노동을 통한 자원의 획득이나 가용시간의 양으로는 젠더 간 무급노동시간 분배를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송다영(2014)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대적 자원론이나 가용시간론에 비해 젠더 요인에 따른 접근이 젠더 간 무급노동시간 기여도 격차에 대한 설명력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유급노동시간과 일·가족 양립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되었다. 장시간 근로는 일과 가족 내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 어려운 시간 갈등을 유발하며,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일·가족 갈등이 증가한다(방진아·허순임, 2021; 정우진·김강식, 2014). 특히 맞벌이 가구 여성은 경제활동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시간 자원 내에서 무급노동에 긴 시간을 투입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시간 압박 및 시간 갈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한편, 일·가족 양립에는 근로시간의 길이뿐만 아니라 근로시간의 유연성도 영향을 미친다. 유연근무는 노동자에게 근로시간과 가족생활시간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간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최근에는 근로시간의 유연성이 일·가족 양립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자녀돌봄 만족도, 직업생활 만족도, 삶의 만족도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되었다(권은낭·엄승미, 2021; 방진아·허순임, 2021; 이수연·김효선, 2017; 정한나, 2022).

또한 정책적으로도 기업의 적극적인 유연근무 활용을 위한 지원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제명 개정을 하면서 제19조의5가 신설되어 근로시간 단축 및 조정에 관한 내용이 사업주의 육아지원 조치 사항으로 포함되었다. 또한「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탄력적 근무제도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탄력적 근무제도는 유연근무제도라는 명칭으로 혼용되다가 2011년부터 한국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1] 그 개념과 내용이 확대되었다. 또한 최근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주당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할 예정이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3. 9. 4), 유연근무제 권장을 위해 기업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제도'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근무혁신 인센티브 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조미라·박은정, 2023).

노동시간과 일·가족 양립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성별 무급노동시간 분배나 근로시간 유연성과 일·가족 갈등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증가하였으나, 무급노동시간, 근로시간 유연성, 일·가족 양립이라는 삼자

1) 한국에서 유연근무제도는 2010년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유연근무제 확산 방안이 논의되고(홍승아·이미화·김동기, 201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토대로 공공부문에서 시행되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확산되었다(황순옥·한상일, 2013).

의 관계성에 초점을 두어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유자녀 여성 노동자들은 한정된 시간 내에서 가사 및 돌봄 노동을 수행하면서 시간 압박과 시간 갈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것이 일·가족 갈등이나 촉진과 직결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중고를 경험하고 있는 유자녀 여성 노동자의 무급노동시간이 일·가족 조화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근로시간 유연성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작업은 일·가족 양립 문제에 대한 연구의 외연을 넓히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유자녀 여성의 무급노동시간이 일·가족 양립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히 살펴보고, 젠더 간 격차가 뚜렷한 무급노동시간이 일·가족 양립에 미치는 영향에 근로시간 유연성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요컨대 본 연구의 목적은 유자녀 여성 노동자의 가사 및 돌봄노동시간이 일·가족 갈등 및 촉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근로시간 유연성에 따라 무급노동시간과 일·가족 갈등 및 촉진의 관계가 영향을 받는지 진단하여, 근로시간 유연성의 조절효과 여부를 검증하는 데에 있다.

Ⅱ. 이론적 논의

1. 일·가족 양립과 주요 영향요인

1) 일·가족 양립 개념

한국 사회에서 '일·가족 양립'에 관한 용어는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의 삶이 일 중심에서 가정과의 균형을 중시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면서 일·가족 양립지원 정책을 강화하고자 2007년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제명을 개정하면서 공적 용어로 정착하게 되었다.

학술적으로 일·가족 양립에 대한 논의는 일과 가족 영역의 갈등을 중심으로 시작하였다. 일·가족 갈등은 개인에게 부여된 직장에서의 역할과 가족에게 수행하길 기대받는 역할에 대한 요구가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의미한다(Greenhaus & Allen, 2011). 일·가족 영역의 갈등은 대표적으로 한정적 시간, 에너지, 집중도 등의 불균형한 분배로 발생되는 자원소모형 갈등(Resource Drain Conflict), 일 또는 가족 영역 중 중 한 영역에서 발생한 긴장, 스트레스 등 부정적 감정이 다른 영역에도 전이되어 발생하는 부정적

전이로 인한 갈등(Negative Spillover Conflict)으로 설명된다(김은수·최은영, 2022; Grandey & Cropanzano, 1999; Grzywacz & Marks, 2000; Ilies, Wilson & Wagner, 2009).

시대적 변화에 따라 일·가족 갈등을 넘어 일과 가족 혹은 일과 생활 영역의 관계성 혹은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이 확장되면서 관련한 다양한 개념들의 이론화로 이어지고 있다(최하영, 2022). 먼저 일과 가족 간 긍정적 측면을 살펴보는 연구들이 증가하였다. 긍정적인 영향으로서 일·가족 균형 또는 일·가족 조화는 개인이 일과 가족생활에서 주어진 역할을 효과적이고 만족스럽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며, 개인이 추구하는 일·가족 역할 조화를 달성하는 정도에 따라 각 개인의 삶의 만족 수준(well-being)도 달라진다(Greenhaus & Allen, 2011). 또한, 일·가족 갈등의 개념에서 사용된 부정적 전이와는 상반되게 한 역할에서 개인이 나타내는 높은 몰입도와 집중도, 긍정적인 감정은 다른 영역으로 긍정적 전이가 되기도 한다(Ilies, Wilson & Wagner, 2009). 일과 가족 두 변인이 서로 상이한 원인과 결과를 지닌 것으로 나타나는(Aryee, Srinivas & Tan, 2005) 등 일·가족 갈등과 일·가족 간 긍정적 영향을 예측하는 요인들이 동일하지 않음이 밝혀지고 있다(박인숙, 2022).

또한 혼용되고 있는 관련 개념들을 정의하려는 시도가 있다. 일과 가족의 상호작용을 설명할 때 주로 사용되는 '양립(compatibility)', '균형(balance)', '조화(harmony)'라는 용어는 개념적으로 차이가 없으나, '양립'이라는 용어는 '균형'과 '조화'에 비해 맥락상 일과 가족 두 영역에 한정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최하영, 2022). 일·가족 간 긍정적인 영향, 경험, 인식을 다룰 때는 일·가족 향상(enrichment), 강화(enhancement), 긍정적 전이(positive spill-over), 촉진(facilitation)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되어 사용되어 왔다(박인숙, 2022). 이 중 일·가족 '촉진'이 한 역할과 관련된 자원이 다른 역할의 수행을 향상시키는 성과에 초점을 맞추며 향상, 전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박인숙, 2022). 최근에는 일·가족 갈등과 일·가족 촉진의 통합적 접근이 점차 시도되고 있다(김소정, 2016; 김준기·양지숙, 2012; 손영미·박정열, 2015)

2) 영향요인 관련 선행연구

기존 연구들에서는 일반적으로 개인 및 가족, 조직 또는 제도적 차원에서 일·가족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고 있다.

첫째, 개인 및 가족 요인으로는 개인적 특성인 연령, 교육수준, 소득, 근로시간을 비롯해 자녀 및 가구 특성인 자녀 연령, 자녀 수, 보조 양육자의 여부, 가사 및 돌봄 노동분담 수준, 그리고 배우자의 근로여건으로서 종사상 지위 또는 소득 등이 다뤄진다. 노동자의 연령이 낮으면 조직 내에서 낮은 직급에 위치함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하지 못하거나(원숙연, 2012), 낮은 연령의 자녀로 인해 가정에서 더 많은 돌봄 노동이 요구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김선희, 2010) 일하는 여성의 연령이 낮을수록 일·가족 양립의 갈등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임효창·이봉세·박경규, 2005; 장수정·송다영·김은지, 2009). 학력의 경우 그 수준이 높을수록 승진, 경력 유지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확대하게 되는데 이때 가정에서의 역할요구로 인해 갈등이 유발된다(Powell & Butterfield, 2003).

소득은 주로 일·가족 양립 갈등을 완화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일·가족 갈등을 해소할 대체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Grzywacz & Marks, 2000; Steiber, 2009). 과도한 업무, 초과 근무, 야간 근무 등 장시간의 근로시간은 일·가족 양립 갈등을 강화하는 요인이다(손영미·박정열, 2015; Ford, Heinen & Langkamer, 2007). Grzywacz, & Marks(2000)에 의하면 근무시간이 많아질수록 일이 가정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증가하며, 근무시간이 적을수록 가정이 일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시간의 양도 일·가족 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일하는 유자녀 여성에게 자녀 관련 변인은 일·가족 양립을 어렵게 하는 주요한 변수이다. 미취학 자녀가 있거나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김희경·신지민, 2023; 임효창·이봉세·박경규, 2005), 자녀 수가 많을수록(배지혜·서혜영·이숙현, 2002) 자녀 돌봄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일·가족 갈등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 가사 또는 돌봄 노동시간도 일·가족 양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김경화(2013)에서는 돌봄,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규명하고 있는데, 기혼 여성이 아닌 남성에만 일·가족 갈등과의 관계가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단순히 돌봄, 가사노동시간이 아닌 돌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직적 차원에서 선행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요인으로는 조직문화 및 분위기, 기업소재지, 기업규모 등이 있다. 조직원에게 공유된 조직의 가치와 규범으로서 개인의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조직문화(임다희·탁성숙·이선우, 2018)는 그 특성에 따라 일·가족 양립 갈등을 강화 또는 완화시킨다. 수직적 조직문화(김희경·조규진, 2017), 성과 또는 조직의

질서 등을 강조하는 조직문화는 일·가족 양립 갈등을 강화하며(임다희·탁성숙·이선우, 2018), 휴가사용이 어렵거나, 야근 또는 주말 근무, 회식 등이 많은 조직문화는 일·가족 양립에 어려움을 준다(채화영·이기영, 2013). 반대로 가족 친화적이거나(김태희·오민지, 2017; 김현근·안성익, 2016), 조직의 성과보다는 결속력이나 인간적인 배려 등이 강조되는 조직문화는 일·가족양립 갈등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된다(임다희·탁성숙·이선우, 2018). 일부 연구에서는 조직문화는 일-가정 갈등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윤민지·공현정·윤수란, 2021).

기업규모도 일·가족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다뤄지고 있다(김인선·이동명, 2009; 장수정·송다영·김은지, 2009). 기업규모가 클수록 일·가족 양립을 위한 지원제도의 도입과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이민우·이영진·한재창, 2008), 일례로 가족친화제도의 경우 도입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어 직장의 규모도 일·가족 균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진미정·성미애, 2012). 다만 상기 연구들에서는 일·가족 양립에 대한 기업 규모의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김인선·이동명, 2009; 진미정·성미애, 2012).

마지막으로 부성보호제도,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성 정책과 보육 및 돌봄 서비스에 관한 제도, 가족친화인증제도 등 기업의 일·가족 양립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등 제도적 요인들도 일·가족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여성의 노동시간 조정이 일·가족 양립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제시된 바 있다(김희경·신지민, 2023; 류연규·백승호, 2013).

2. 유·무급노동시간과 일·가족양립

1) 근로시간의 양 및 유연성과 일·가족 양립

한정된 시간자원 내에서 유급노동시간에 많은 시간을 투입할 경우 가족의 생활과 돌봄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가족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시간이 있으므로 근로시간의 증가는 시간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Grzywacz & Marks(2000)의 연구결과와 같이, 국내 선행연구들을 통해서도 근로시간의 증가가 일·가족 양립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김동식·김영택·정진주, 2013; 송다영·장수정·김은지, 2010). 시간빈곤의 관점에서 노동시간과 일·가족 양립을 분석한 다수의 선행연구들도 있으며(노혜진, 2019; 박예은 외, 2016; 이경희·김근주, 2018), 시

간 갈등으로 인해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하기 어려운 여성들이 근로시간을 줄여, 결국 여성들의 불안정 노동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지적되기도 하였다(국미애, 2013).

한편, 일·가족 양립을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양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활 시간구조에 맞게 근로시간을 조율할 수 있는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도 중요하다.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근로시간 유연성 또는 근로시간 유연화는 일·가족 만족도, 자녀 돌봄 만족도, 가족생활 만족도 등 일·가족 촉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권은낭·엄승미, 2021; 방진아·허순임, 2021; 이수연·김효선, 2017). 그러나 근로시간 및 방식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가 오히려 일과 가족생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기 때문에 부정적이라는 상반된 연구결과도 있다. 성별에 따라 유연근무제도가 다른 의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남성은 주로 근무 성과 확대 및 임금 향상을 목적으로 유연근무제도를 사용하는 한편, 여성에게는 일·가족 생활 영역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듦으로써 여성의 일·가족 양립에는 긍정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존재한다(정희정, 2019).

하지만 유연근무제도가 일·가족 양립 및 여성의 노동환경 개선, 성평등한 돌봄 문제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에서도 근로시간 유연화는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예방하고, 일·가족 양립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된다. 다만, 유연근무제도 도입 및 활용에 있어서 기업규모와 특성, 조직문화 및 분위기에 따라 도입 수준과 활용 정도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방진아·허순임, 2021). 따라서 근로시간 유연성에 대한 논의에서는 유연근무제도 여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직 요인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2) 젠더 간 무급노동시간의 분배

젠더 간 노동시간 분배에 대한 이론은 크게 상대적 자원론, 가용시간론, 젠더수행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대적 자원론은 가족 내 구성원이 가진 자원의 크기에 따라 경제적 협상력이 결정되고 경제적 의존성의 격차에 따라 가족 내 무급노동의 젠더 격차가 결정된다고 본다(Berk, 1985; Davis & Greenstein, 2013). 즉, 상대적 자원론에 따르면, 유급노동을 통한 경제력의 차이가 가족 내 경제적 협상력의 차이로 이어지고, 경제력이 적은 사람이 무급노동을 담당하게 된다. 가용시간론에서는 한정된 시간 내에서 시간의 합리적 배분에 따라 시간의 가용성이 결정된다고 본다. 가용시간론에서는 무급노동시간에 투입될 수 있는 시간은 유급노동시간에 결정적 영향을 받으며, 무급노동시간의 젠더 격차는 유급노동시간의 격차로 인한 결과로 해석한다(Coltrane, 2000; 안미

영, 2016; 이혜정·송다영, 2023). 상대적 자원론이나 가용시간론은 개인이 가진 자원의 크기나 시간의 가용성에 따라 젠더 중립적으로 유급노동과 무급노동 시간 배분을 설명하나, 이러한 이론들로는 설명되지 못하는 가족 내 노동시간 분배의 분명한 젠더 격차가 존재한다.

젠더수행론(gender display)은 가족 내 노동시간 분배에서 젠더 이데올로기가 강력한 영향요인임을 제시한다. 그린스타인(Greenstein, 2000)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사노동 분담률이 오히려 경제적 의존성이 높은 남성에게서 낮게 나타났으며, 여성은 경제적 독립성이 높아도 가사노동 분담률이 낮지 않았다. 국내 연구에서도 여성은 취업여부에 따라 돌봄시간에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지만, 남성의 경우 미취업 남성의 돌봄시간이 전일제 여성 노동자의 평균 돌봄시간보다 짧게 나타났다. 남성은 오히려 시간제 근로 남성이 전일제에 비해 자녀돌봄시간이 짧았다(주은선, 2014). 또한 남녀 모두 유급노동시간이 증가하면 돌봄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의 근로시간 증가가 부의 돌봄시간의 증가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들도 있다(김소영·진미정, 2016; Hallberg & Klevmarken, 2003).

한편, 가족 내 노동분업이나 노동시간 분배에 대한 연구들에서 무급노동은 크게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으로 구분된다. 요리, 설거지, 빨래, 청소 등 가사노동과 씻기기, 옷 입히기, 재우기, 놀아주기, 간호 등 가족 구성원에 대한 돌봄노동은 노동의 성격이 상이하다(안미영, 2016; 주은선, 2014). 가사노동은 외부 자원을 통해 대체될 수 있는 노동이나 자녀에 대한 돌봄 시간은 시장의 서비스나 재화로 온전히 대체되기 어렵다. 또한 자녀 돌봄에 시간과 에너지가 투입되나, 부모도 자녀를 돌보는 시간을 통해 정서적 만족을 경험하기도 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가사노동에 돌봄노동을 포함하거나 가사노동만을 다룬 연구들이 있으나(은기수, 2009; Coltrane, 2000), 젠더 간 노동시간의 분배에 초점을 둔 다수의 연구들에서는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의 상이한 성격을 고려하여 구분하고 있다(윤자영, 2010; 이혜정·송다영, 2023a; 2023b; 조성호, 2016).

3. 연구가설

본 연구는 가사노동과 돌봄노동 성격이 상이하며 영향요인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독립변수인 무급노동시간을 가사노동시간과 돌봄노동시간으로 구분한다. 또한 일과 가족의 상호관계를 부정적 영향

과 긍정적 영향을 통합적 시각에서 접근한 최근 선행연구들(김소정, 2016; 김준기·양지숙, 2012; 손영미·박정열, 2015)의 흐름에 따라, 종속변수인 일·가족 양립을 일·가족 갈등과 일·가족 촉진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선행연구를 토대로 유자녀 여성 관리자의 가사노동시간 및 돌봄노동시간이 일·가족 갈등과 일·가족 촉진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세운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유자녀 여성 관리자의 무급노동시간의 양은 일·가족 갈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1-1: 유자녀 여성 관리자의 가사노동시간의 양은 일·가족 갈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1-2: 유자녀 여성 관리자의 돌봄노동시간의 양은 일·가족 갈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유자녀 여성 관리자의 무급노동시간의 양은 일·가족 촉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1: 유자녀 여성 관리자의 가사노동시간의 양은 일·가족 촉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2: 유자녀 여성 관리자의 돌봄노동시간의 양은 일·가족 갈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유자녀 여성 관리자의 가사노동시간 및 돌봄노동시간이 일·가족 갈등 및 일·가족 촉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로시간 유연성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에 따라 연구가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3: 유자녀 여성 관리자의 무급노동시간의 양이 일·가족 갈등 및 일·가족 촉진에 미치는 영향에 근로시간 유연성이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연구가설 3-1: 유자녀 여성 관리자의 가사노동시간이 일·가족 갈등에 미치는 영향에 근로시간 유연성이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연구가설 3-2: 유자녀 여성 관리자의 돌봄노동시간이 일·가족 갈등에 미치는 영향에 근로시간 유연성이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연구가설 3-3: 유자녀 여성 관리자의 가사노동시간이 일·가족 촉진에 미치는 영향에 근로시간 유연성이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연구가설 3-4: 유자녀 여성 관리자의 돌봄노동시간이 일·가족 촉진에 미치는 영향에 근로시간 유연성이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이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22년 조사한 2기 여성 관리자 패널의 3차 관리자 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2] 여성 관리자 패널은 전국 10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과장급 이상 관리자 및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다. 여성 관리자 패널은 분석에 필요한 유자녀 여성 노동자 사례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며, 다양한 모형 적용이 가능한 일-가족 양립 관련 변인과 유·무급노동시간 관련 변인을 포함하고 있어 분석에 활용하였다. 무급노동시간(가사노동, 돌봄노동) 분담을 연구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의 시간 사용 실태를 조사한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를 주로 활용하여 무급노동시간 사용현황과 그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있다(이혜정·송다영, 2023a). 그러나 통계청 생활시간자료나 노동패널의 경우는 일·가족 갈등 및 촉진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본 연구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가사 및 돌봄노동시간과 일과 가족생활 사이에서 응답자가 인지한 갈등 및 촉진 수준의 인과관계 규명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된 것으로, 무급노동시간 중 가사와 돌봄노동시간 각각의 양적 정보와 일·가족 갈등 및 촉진 인식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여성 관리자 패널을 활용하였다. 다만, 여성 관리자 패널은 전체 여성 노동자가 아닌 여성 관리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해석상 주의가 필요하다.

분석대상자는 미성년 자녀를 둔 여성 관리자 총 922명이다. 이 연구는 자녀를 둔 여성 관리자의 가사 및 돌봄노동시간이 일·가족 갈등 및 촉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성인 자녀를 둔 여성 관리자는 제외하

2) 본 연구에서는 여성 관리자 패널 홈페이지에 공개된 데이터인 '(data)2기1~3차여성 관리자 패널조사_관리자_wide.dta'에서 최신 조사인 3차 조사 변수를 중심으로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만, 분석모형에서 통제변수로 투입한 막내자녀 연령, 미취학 자녀 수의 경우, 2기 1차조사(2020년) 이후 조사부터는 추가 출산 자녀에 대해서만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1차조사의 자녀 정보와 2차와 3차조사에서 추가된 자녀의 정보를 연계하여 가공하여 사용하였다.

고 자녀 관련 시간 압박이나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배우자가 있고 미성년 자녀를 둔 여성 관리자로 대상을 한정하였다.

2. 주요 변수

1) 종속변수: 일·가족 갈등, 일·가족 촉진

본 연구에서 일·가족 갈등과 촉진은 '직장 일의 가정생활 영향'과 '가정생활 및 가족의 직장 일 영향'을 질문한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일·가족 갈등은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 '일하는 시간이 불규칙해서 가정생활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 '자녀양육 혹은 가족 돌봄 부담으로 인해 일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 때가 많다', '집안일이 많아서 직장에서 일을 할 때 힘들 때가 많다', '가정생활 때문에 일을 그만둘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5개 문항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해당 문항들은 '①전혀 그렇지 않다 ~ ⑤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일·가족 갈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일·가족 갈등 5문항의 신뢰도는 크론바흐 알파 계수가 .826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일·가족 촉진은 '일을 하는 것은 내게 삶의 보람과 활력을 준다', '일을 함으로써 가족들에게 더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을 함으로써 가정생활도 더욱 만족스러워진다',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 '가족들이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해주어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된다' 총 5문항의 평균값을 이용해 측정하였다. 이 역시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가족 촉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일·가족 촉진 5문항의 신뢰도는 크론바흐 알파 계수가 .851로 높은 수준이었다.

2) 독립변수: 가사노동시간, 돌봄노동시간

가사 및 돌봄노동시간은 주당 시간으로 변환하였다. 원자료에서는 '귀하와 배우자가 집안일(가사, 돌봄 등)을 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몇 시간 입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본인과 배우자의 평일과 주말 각각의 하루 평균 가사, 돌봄(자녀, 환자돌봄) 시간을 직접 기입하게 함으로써 평일 하루 평균 가사 및 돌봄시간과 주말 하루 평균 가사 및 돌봄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평일의 경우는 5, 주말의 경우는 2를 곱한 값을 더해 주당 가사노동시간 및 돌봄노동시간으로 환산하였다.

3) 조절변수: 근로시간 유연성

조절변수는 제도적 요인인 근로시간 유연성 정도 변수이다. 근로시간 유연성은 '유연근무제도 사용이 자유로운 편이다', '연차 사용이 자유로운 편이다' 2문항을 활용하였다. 해당 문항은 '①전혀 그렇지 않다 ~ ⑤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는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근로시간 사용이 유연함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크론바흐 알파 계수가 .681로 신뢰할만한 수준임을 확인하였고, 평균값으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다중공선성을 완화하고 상호작용 효과를 명확히 도출하고자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상호작용항은 평균중심화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4)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일·가족 갈등 및 촉진에 영향에 미치는 변수로 연령, 학력, 소득, 근로시간, 미취학 자녀 수, 보조양육자 유무, 배우자 종사상 지위, 배우자 소득, 가사 또는 돌봄시간 차, 기업의 조직문화, 기업 소재지, 기업규모를 투입하였다. 통제변수에는 크게 개인수준과 조직수준의 변인들을 투입하였다. 개인수준 변수는 분석대상자의 인적특성, 가구특성으로 구분된다. 인적특성 관련 통제변수로 연령, 학력, 본인 연평균 소득, 본인 근로시간을 포함하였다. 가구특성으로는 자녀특성 및 배우자의 근로특성을 포함하였는데, 자녀특성에는 막내자녀 연령, 미취학 자녀수, 보조양육자 유무를 포함하였고, 배우자 근로특성에는 배우자의 종사상 지위 및 배우자 연평균 소득 변수를 투입하였다. 또한 가구의 돌봄시간 특성으로 본인과 배우자 간에 가사노동시간 차, 돌봄노동시간 차를 포함하였다. 조직수준 특성으로는 기업의 조직문화, 기업소재지, 기업규모 변수를 포함하였다. 이 중 조직문화 변수는 '야근(장시간근로)을 하면 평가를 잘 받는다', '회식이나 각종 모임에 빠지면 눈치가 보인다', '우리 회사는 경쟁적 분위기와 성과달성을 강조한다' 등의 총 5개 문항을 유연하고 평등한 조직문화일수록 값이 높도록 역코딩하였다. 이들 문항에 대한 크론바흐 알파 계수는 .701으로 신뢰 수준이 높은 편이었고, 분석에는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변수의 구체적인 측정 방법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변수의 구성 및 측정

구분	변수명	측정
종속변수	일·가족 갈등	5점 리커트식 서열척도(5문항)를 연속형 변수로 처리(평균)
	일·가족 촉진	5점 리커트식 서열척도(5문항)를 연속형 변수로 처리(평균)
독립변수	가사노동시간	주당 가사노동시간 = 평일 하루평균 가사시간×5 + 주말 하루평균 가사시간×2
	돌봄노동시간	주당 돌봄노동시간 = 평일 하루평균 돌봄시간×5 + 주말 하루평균 돌봄시간×2
조절변수	근로시간 유연성	5점 리커트식 서열척도(2문항)를 연속형 변수로 처리(평균)
통제변수	연령	20대=1, 30대=2, 40대=3, 50대=4, 60대=5
	학력	고졸 이하=1, 대학(교) 졸업(4년제 미만)=2, 대학교 졸업(4년제 이상)=3, 대학원 졸업(석사)=4, 대학원 졸업(박사)=5
	본인 연평균 소득	3천만원 미만=1, 3천만원-5천만원 미만=2, 5천만원-7천만원 미만=3, 7천만원-1억원 미만=4, 1억원 이상=5
	본인 근로시간	총 업무 시간 = 통상 업무시간 + 연장 근무시간 (주당)
	막내자녀 연령	연속형 변수, 20년 자료 자녀 연령 및 이후 추가 출산 자녀 연령 변수 활용하여 계산
	미취학 자녀수	연속형 변수, 20년 자료 자녀 연령 및 이후 추가 출산 자녀 연령 변수 활용하여 계산
	보조양육자 유무	본인 및 배우자 외 친·인척, 민간베이비시터가 돌본 경우, 보조 양육자 있음=1, 보조 양육자 없음=0
	배우자 종사상 지위	상용직=1, 상용직 외=0
	배우자 연평균 소득	3천만원 미만=1, 3천만원-5천만원 미만=2, 5천만원-7천만원 미만=3, 7천만원-1억원 미만=4, 1억원 이상=5
	가사 노동 시간 차	본인 가사노동시간 - 배우자 가사노동시간 (주당)
	돌봄 노동 시간 차	본인 돌봄노동시간 - 배우자 돌봄노동시간 (주당)
	조직문화	5점 리커트식 서열척도(5문항)를 역코딩하여 연속형 변수로 처리(평균)
	기업소재지	수도권(서울, 인천/경기)=1, 수도권 외=0
	기업규모	100~199인=1, 200~299인=2, 300~499인=3, 500인 이상=4

3. 분석 방법 및 분석 모형

분석대상자 및 변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주요 변인에 대한 빈도분석과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회귀분석 수행 전에 통제변수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였다. 그리고 이론적 근거에 따라 독립변수 및 조절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동시에 근로시간 유연성의 조절효과를 명확하게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절차를 제시하면, 먼저 일·가족 갈등 및 촉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수준과 조직수준

의 변인을 통제하였으며, 이후 독립변수, 조절변수, 상호작용항(독립변수×조절변수)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각 단계별로 설명력(R^2)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지 검토하여 조절효과를 판명하였다.

Y는 종속변수인 일·가족 갈등 변수이다. β_i는 통제변수들을 의미하는 X_i의 각각에 대한 회귀계수이며, 독립변수인 X_1은 가사노동시간, X_2는 돌봄노동시간, β_1과 β_2는 독립변수 각각의 회귀계수이다. M은 조절변수인 근로시간 유연성이며, β_3는 조절변수의 회귀계수이다. X_1M은 가사노동시간과 근로시간 유연성의 상호작용항이며, X_2M는 돌봄노동시간과 근로시간 유연성의 상호작용항이다. β_4와 β_5는 각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이다. 가사노동시간과 돌봄노동시간이 일·가족 갈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로시간 유연성의 조절효과 분석 모형의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Y = \beta_0 + \Sigma\beta_i X_i + \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M + \beta_4 X_1 M + \varepsilon_y \quad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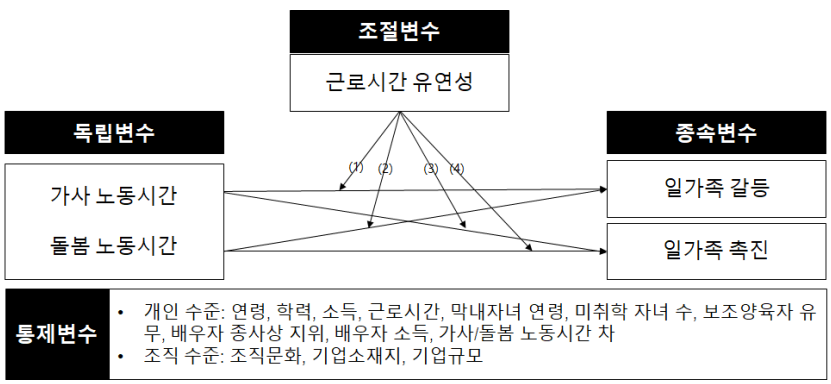
$$Y = \beta_0 + \Sigma\beta_i X_i + \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M + \beta_5 X_2 M + \varepsilon_y \quad (2)$$

Z은 종속변수인 일·가족 촉진 변수이다. 가사노동시간과 돌봄노동시간이 일·가족 갈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로시간 유연성의 조절효과 분석 모형의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Z = \gamma_0 + \Sigma\gamma_i X_i + \gamma_1 X_1 + \gamma_2 X_2 + \gamma_3 M + \gamma_4 X_1 M + \varepsilon_z \quad (3)$$

$$Z = \gamma_0 + \Sigma\gamma_i X_i + \gamma_1 X_1 + \gamma_2 X_2 + \gamma_3 M + \gamma_5 X_2 M + \varepsilon_z \quad (4)$$

이를 종합하여 제시한 연구모형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분석모형

Ⅳ. 분석결과

1. 기술통계

본 연구의 대상은 〈표 2〉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갖는다. 전체 분석대상자는 922명으로 40대가 69.96%로 다수를 차지했고, 학력의 경우 대학교 졸업이 54.01%, 대학원 졸업 이상이 21.69%에 달해 학력수준이 높은 편이었다. 소득은 연평균 3~5천만원 미만과 5~7천만원 미만이 35.79%로 가장 많았고, 7천만원~1억원 미만도 22.34%였다. 미취학 자녀가 없는 경우가 76.57%, 1명이 21.48%, 2명 이상이 1.95%였다. 보조양육자가 있는 경우는 43.6%이었다. 배우자의 종사상지위가 상용직인 경우가 82.21%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배우자의 소득은 연평균 5~7천만원이 31.78%, 7천만원~1억원 미만이 30.26%, 1억 이상이 13.88%였다. 직장 특성과 관련해서는 직장의 위치가 수도권 외에 있는 경우가 53.04%였고, 규모는 100~199인 35.25%, 500인 이상이 34.7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분석 대상자의 주요 특성

(단위: 명, %)

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계		922	100.00
연령 (평균: 43.8세)	30대	160	17.35
	40대	645	69.96
	50대	117	12.69
학력	고졸 이하	44	4.77
	대학(교) 졸업(4년제 미만)	180	19.52
	대학교 졸업(4년제 이상)	498	54.01
	대학원 졸업(석사)	149	16.16
	대학원 졸업(박사)	51	5.53
연평균 소득	3천만원 미만	25	2.71
	3천만원~5천만원 미만	330	35.79
	5천만원~7천만원 미만	330	35.79
	7천만원~1억원 미만	206	22.34
	1억원 이상	31	3.36

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미취학 자녀 수	0명	706	76.57
	1명	198	21.48
	2명 이상	18	1.95
보조양육자 유무	있음	402	43.6
	없음	520	56.4
배우자 종사상 지위	상용직	758	82.21
	상용직 외	164	17.79
배우자 연평균 소득	3천만원 미만	67	7.26
	3천만원~5천만원 미만	155	16.81
	5천만원~7천만원 미만	293	31.78
	7천만원~1억원 미만	279	30.26
	1억원 이상	128	13.88
기업 소재지	수도권	433	46.96
	수도권 외	489	53.04
기업 규모	100~199인	325	35.25
	200~299인	140	15.18
	300~499인	137	14.86
	500인 이상	320	34.71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가사 및 돌봄노동시간, 근로시간 유연성, 일·가족 갈등 및 촉진 등은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대체로 정상분포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주요 변수의 특성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댓값	최솟값	왜도	첨도
가사노동시간	922	19.94	10.34	72	2	1.19	4.84
돌봄노동시간	922	24.76	14.63	112	0	0.99	4.65
가사노동시간 차	922	8.21	11.33	55	-57	0.16	5.48
돌봄노동시간 차	922	8.06	14.64	96	-57	0.60	6.61
근로시간 유연성	922	3.56	1.02	5	1	-0.24	2.26
근로시간	922	38.33	13.48	80	4	-1.33	3.96
일·가족 갈등	922	2.82	0.84	5	1	0.03	2.62
일·가족 촉진	922	3.77	0.74	5	1	-0.43	3.24

2.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연구모형 분석에 앞서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0.7 이상은 없었으며,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있는 변수도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본인의 가사노동시간과 배우자와의 가사노동시간 차의 상관관계, 본인의 돌봄노동시간과 배우자와의 돌봄노동시간 차, 본인 연령과 막내자녀 연령, 막내자녀연령과 미취학자녀 수의 상관관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종속변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를 살펴보면, 가사노동시간, 돌봄노동시간, 근로시간, 미취학자녀 수, 배우자와의 가사노동시간 차, 돌봄노동시간 차, 기업 소재지(준거집단-비수도권)와 일·가족갈등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근로시간 유연성, 연령, 본인 연평균 소득, 막내자녀 연령, 유연하고 평등한 조직문화, 기업규모와 일·가족 갈등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일·가족 촉진은 근로시간 유연성, 연령, 본인 연평균 소득, 근로시간, 유연하고 평등한 조직문화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가사노동시간, 돌봄노동시간, 배우자와의 가사노동시간 차, 돌봄노동시간 차, 기업 소재지와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	1.00																		
2	-0.17***	1.00																	
3	0.14***	-0.08*	1.00																
4	0.13***	-0.03	0.38***	1.00															
5	-0.24***	0.23***	-0.14***	-0.08*	1.00														
6	-0.15***	0.08*	-0.06	-0.31***	0.07*	1.00													
7	0.03	0.05	-0.12***	0.04	0.13***	-0.07*	1.00												
8	-0.09**	0.13***	-0.18***	-0.15***	0.24***	0.16***	0.30***	1.00											
9	0.08*	0.07*	-0.10**	-0.09**	0.05	0.10**	0.01	0.02	1.00										
10	-0.19***	0.06	-0.07*	-0.45***	0.05	**0.58*** **	-0.14***	0.11***	0.06	1.00									
11	0.12***	-0.03	0.07*	0.28***	-0.02	-0.39***	0.11**	-0.03	-0.06	**-0.67*** **	1.00								
12	-0.05	0.01	-0.03	0.02	0.02	-0.03	0.05	0.15***	-0.03	-0.02	-0.02	1.00							
13	0.05	-0.02	0.01	0.03	0.02	-0.08*	0.05	-0.04	0.01	-0.11***	0.10**	0.08*	1.00						
14	0.04	0.01	-0.11***	-0.04	0.12***	0.02	0.26***	0.35***	0.04	0.04	-0.02	0.14***	0.26***	1.00					
15	0.10**	-0.10**	**0.61*** **	0.18***	-0.09**	-0.02	-0.04	-0.08*	-0.04	0.03	-0.03	0.00	0.03	0.05	1.00				
16	0.11***	-0.08*	0.19***	**0.58*** **	-0.05	-0.09**	0.03	-0.06	-0.04	-0.11***	0.03	0.01	0.03	0.07*	0.49***	1.00			
17	-0.29***	0.07*	0.01	-0.02	0.19***	0.07*	-0.05	-0.10**	-0.03	0.14***	-0.09**	-0.01	-0.04	-0.11***	-0.05	-0.05	1.00		
18	0.07*	-0.11***	-0.06	0.03	-0.03	-0.07*	-0.01	0.12***	0.01	-0.09**	0.09**	0.02	0.01	0.14***	-0.09**	-0.03	-0.08*	1.00	
19	-0.01	0.01	-0.02	-0.03	0.05	-0.03	0.16***	0.20***	-0.04	-0.05	0.03	0.10**	0.03	0.11**	-0.01	-0.02	-0.04	-0.04	1.00

* $p<.05$, ** $p<.01$, *** $p<.001$.

1. 일·가족 갈등, 2. 일·가족 촉진, 3. 가사노동시간, 4. 돌봄노동시간, 5. 근로시간 유연성, 6. 연령, 7. 학력, 8. 본인 연평균 소득, 9. 근로시간, 10 막내자녀 연령, 11. 미취학자녀 수, 12. 보조양육자 유무, 13. 배우자 종사상 지위, 14. 배우자 연평균 소득, 15. 가사노동시간 차, 16. 돌봄노동시간 차, 17. 조직문화, 18. 기업 소재지, 19. 기업 규모

3. 근로시간 유연성의 조절효과

먼저, 〈표 5〉는 가사노동시간과 돌봄노동시간이 일·가족 갈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로시간 유연성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이다. Model 1은 통제변수만 투입한 회귀분석 결과로, 본인 연평균소득이 낮을수록, 본인 근로시간 길수록, 막내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경직된 성과 중심 조직문화일수록 일·가족 갈등 정도가 크게 나타났다. 독립변수들을 투입한 Model 2에서는 여성 관리자의 가사노동시간이 길수록 일·가족 갈등 정도가 컸으며, 돌봄노동시간의 길이는 일·가족 갈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추가적으로 통제변수 중 돌봄노동시간 차도 일·가족 갈등에 영향을 미쳤다. 즉, 돌봄노동시간의 길이 자체는 일·가족 갈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여성 관리자의 돌봄노동시간이 배우자보다 길수록 일·가족 갈등 정도가 커짐을 알 수 있다.

조절변수인 근로시간 유연성을 투입한 Model 3에서 근로시간 유연성이 적을수록 일·가족 갈등이 커졌으며, 근로시간 유연성은 조직문화와 함께 일·가족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본인의 연평균소득이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요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근로시간의 유연성이 소득효과를 상쇄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가사노동시간과 근로시간 유연성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Model 4를 살펴보면, 가사노동시간이 일·가족 갈등에 미치는 정적 영향은 근로시간 유연성이 높을수록 약해진다. 또한 돌봄노동시간과 근로시간 유연성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Model 5의 분석결과를 보면, 돌봄노동시간이 일·가족 갈등에 미치는 영향에 근로시간 유연성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노동시간의 일·가족 갈등에 대한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근로시간 유연성이 높을수록 돌봄노동시간이 일·가족 갈등에 미치는 부적 영향은 더욱 강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근로시간 유연성의 조절효과 분석: 일·가족 갈등

변인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t	B	t	B	t	B	t	B	t	B
상수		16.4***	4.041	16.39***	4.058	15.01***	3.762	15.01***	3.756	15.08***	3.764
통제변수	연령	-1.28	-0.075	-1.5	-0.087	-1.42	-0.081	-1.47	-0.085	-1.52	-0.087
	학력	0.59	0.019	0.92	0.029	1.17	0.037	1.15	0.036	1.27	0.040
	본인 연평균 소득	-3.01***	-0.101	-2.78**	-0.093	-1.72	-0.058	-1.76	-0.059	-1.73	-0.058
	본인 근로시간	2.66***	0.005	2.96**	0.006	3.19**	0.006	3.24**	0.006	3.24**	0.006
	막내자녀 연령	-2.45*	-0.023	-2.56*	-0.025	-2.67**	-0.026	-2.7**	-0.026	-2.71**	-0.026
	미취학 자녀 수	-0.13	-0.009	-0.3	-0.021	-0.25	-0.018	-0.3	-0.022	-0.29	-0.020
	보조양육자 유무	-1.34	-0.071	-1.22	-0.065	-1.35	-0.07	-1.32	-0.068	-1.39	-0.072
	배우자 종사상 지위	0.22	0.016	0.13	0.009	0.27	0.019	0.29	0.02	0.38	0.027
	배우자 연평균 소득	1.1	0.027	1.49	0.037	1.74	0.043	1.77	0.044	1.71	0.042
	가사노동시간 차	1.78	0.005	-1.35	-0.005	-1.4	-0.005	-1.41	-0.005	-1.38	-0.005
	돌봄노동시간 차	1.23	0.003	2.35*	0.007	2.38*	0.007	2.48*	0.007	2.38*	0.007
	조직문화	-8.31***	-0.307	-8.42***	-0.309	-7.14***	-0.266	-7.09***	-0.263	-7.16***	-0.265
	기업소재지	1.45	0.077	1.45	0.077	1.2	0.063	1.32	0.069	1.25	0.065
	기업규모	0.04	0.001	-0.1	-0.002	-0.11	-0.002	-0.15	-0.003	-0.18	-0.004
독립변수	가사노동시간(A)			3.85***	0.015	3.61***	0.014	3.42**	0.013	3.51***	0.013
	돌봄노동시간(B)			-1.5	-0.004	-1.56	-0.005	-1.68	-0.005	-1.74	-0.005
조절변수	근로시간 유연성(C)					-5.18***	-0.137	-5.04***	-0.133	-5.15***	-0.135
상호작용항	A×C							-2.04*	-0.005		
	B×C									-2.95**	-0.005
R^2		0.140		0.154		0.179		0.183		0.187	
Adj R^2		0.127		0.140		0.163		0.166		0.171	
F		10.56***		10.33***		11.58***		11.21***		11.51***	

* p<.05, ** p<.01, *** p<.001.

다음으로, 〈표 6〉은 가사노동시간과 돌봄노동시간이 일·가족 촉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로시간 유연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통제변수만 투입한 Model 1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본인 연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본인보다 배우자의 가사노동시간이 길수록, 기업소재지가 수도권 외인 경우 일·가족 촉진 정도가 커짐을 알 수 있다. Model 2에서 독립변수들은 모두 일·가족 촉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독립변수를 투입한 경우 가사노동시간 차가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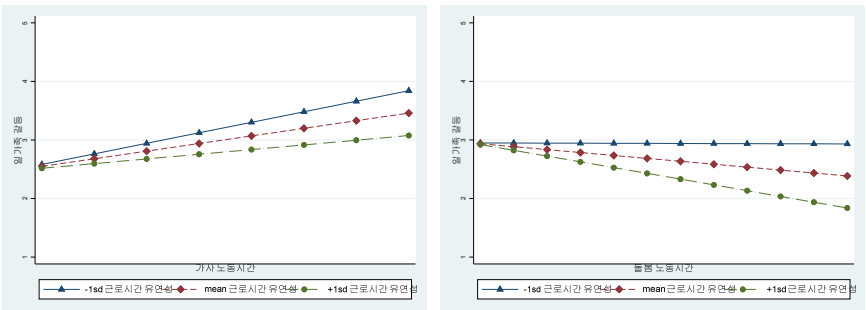
Model 3의 분석결과에서 투입한 조절변수인 근로시간 유연성 정도가 클수록 일·가족 촉진 정도도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가사노동시간과 근로시간 유연성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Model 4에서는 가사노동시간과 일·가족 촉진 간의 영향에 근로시간 유연성의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사노동시간과 근로시간 유연성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을 때, 돌봄노동시간이 길수록 일·가족 촉진 정도가 커짐을 볼 수 있다. 이는 근로시간 유연성으로 인해 가사노동시간의 영향력이 조절되었을 때 여성 관리자는 오히려 돌봄노동시간 확보를 통해 일·가족 촉진을 경험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돌봄노동시간과 근로시간 유연성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Model 5에서는 근로시간 유연성이 돌봄노동시간과 일·가족 촉진 간 정적 영향을 강화하였다. 즉, 근로시간 유연성이 높을수록 돌봄노동시간의 일·가족 촉진 증가효과가 더 커졌다.

〈표 6〉 근로시간 유연성의 조절효과 분석: 일·가족 촉진

변인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t	B	t	B	t	B	t	B	t	B
상수		13.52***	3.089	13.11***	3.028	14.21***	3.326	14.30***	3.331	14.28***	3.003
통제변수	연령	0.97	0.053	1.09	0.059	0.99	0.053	1.05	0.056	1.07	0.057
	학력	0.47	0.014	0.39	0.012	0.14	0.004	0.16	0.005	0.07	0.002
	본인 연평균 소득	3.54***	0.110	3.6***	0.112	2.46*	0.077	2.49*	0.078	2.46*	0.077
	본인 근로시간	1.89	0.003	1.91	0.003	1.73	0.003	1.69	0.003	1.71	0.003
	막내자녀 연령	0.33	0.003	0.89	0.008	0.99	0.009	1.02	0.009	1.01	0.009
	미취학 자녀 수	0.49	0.033	0.53	0.036	0.49	0.032	0.54	0.035	0.51	0.034
	보조양육자 유무	-0.11	-0.006	-0.21	-0.010	-0.1	-0.005	-0.13	-0.006	-0.07	-0.003
	배우자 종사상 지위	0.06	0.004	0.12	0.008	-0.03	-0.002	-0.05	-0.003	-0.11	-0.007
	배우자 연평균 소득	-0.39	-0.009	-0.41	-0.010	-0.67	-0.015	-0.70	-0.016	-0.64	-0.015
	가사노동시간 차	-2.24*	-0.005	-0.82	-0.003	-0.8	-0.003	-0.8	-0.003	-0.82	-0.003
	돌봄노동시간 차	-0.53	-0.001	-1.61	-0.004	-1.63	-0.004	-1.72	-0.004	-1.63	-0.004
	조직문화	1.86	0.064	1.77	0.061	0.48	0.017	0.43	0.015	0.47	0.016
	기업소재지	-3.74***	-0.185	-3.78***	-0.187	-3.56***	-0.173	-3.67***	-0.178	-3.6***	-0.174
	기업규모	-0.41	-0.008	-0.32	-0.006	-0.31	-0.006	-0.28	-0.005	-0.26	-0.005
독립변수	가사노동시간(A)			-0.94	-0.003	-0.64	-0.002	-0.47	-0.002	-0.56	-0.002
	돌봄노동시간(B)			1.81	0.005	1.89	0.005	2.00*	0.005	2.01*	0.005
조절변수	근로시간 유연성(C)					5.62***	0.138	5.48***	0.135	5.59***	0.137
상호작용항	A×C							1.93	0.004		
	B×C									2.14*	0.003
R^2		0.053		0.057		0.088		0.092		0.093	
Adj R^2		0.039		0.040		0.071		0.074		0.075	
F		3.63***		3.39***		5.15***		5.09***		5.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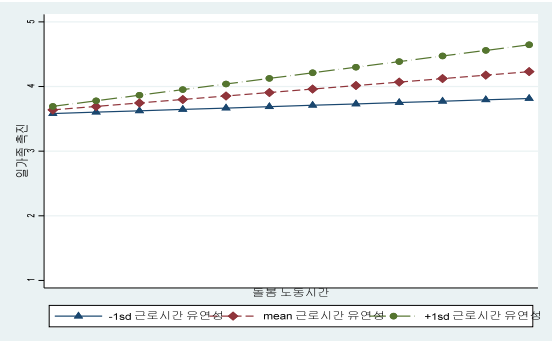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근로시간 유연성의 조절효과를 도식화한 그래프는 [그림 2], [그림 3]과 같다. 근로시간 유연성의 평균값과 평균 ±1 표준편차값을 기준으로 각각의 그래프를 도출하였다. [그림 2]의 좌측 그래프에 의하면, 근로시간 유연성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함에 따른 일·가족 갈등 증가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로시간 유연성이 가사노동시간의 일·가족 갈등에 대한 정적 효과를 약화시킴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그림 2]의 우측 그래프에서 돌봄노동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유연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근로시간 유연성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모두 돌봄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일·가족 갈등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나, 근로시간 유연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상대적으로 돌봄노동시간 증가에 따른 일·가족 갈등이 강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근로시간 유연성이 높을수록 돌봄노동시간의 일·가족 갈등 감소효과가 커짐을 알 수 있다.



[그림 2] 일·가족 갈등에 대한 가사 및 돌봄노동시간 수준별 근로시간 유연성의 상호작용 효과

[그림 3]은 일·가족 촉진에 대한 근로시간 유연성의 조절효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근로시간 유연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 돌봄노동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일·가족 촉진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근로시간 유연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 돌봄노동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일·가족 촉진이 증가하는 경향이 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그림 3] 일·가족 촉진에 대한 돌봄노동시간 수준별 근로시간 유연성의 상호작용 효과

V. 종합 및 논의

본 연구는 유자녀 여성 관리자의 가사노동시간과 돌봄노동시간이 일·가족 갈등 및 촉진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근로시간 유연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제시된 연구가설을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종합해보고자 한다.

먼저, 유자녀 여성 관리자의 가사노동시간의 양이 증가할수록 일·가족 갈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1-1은 채택되었으나 돌봄노동시간과 일·가족 갈등을 정적 관계로 가정한 연구가설 1-2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일·가족 촉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유자녀 여성 관리자의 가사노동시간은 일·가족 촉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2-1도 채택되지 않았다. 한편, 연구가설 2-2와는 반대로 돌봄노동시간의 양은 일·가족 촉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 역시 기각되었다.

근로시간 유연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근로시간 유연성이 유자녀 여성 관리자의 가사노동시간 및 돌봄노동시간과 일·가족 갈등에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3-1과 3-2는 채택되었다. 또한 상호작용 도표 확인을 통해 근로시간 유연성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시간의 일·가족 갈등에 대한 정적 효과는 감소하고, 돌봄노동시간의 일·가족 갈등에 대한 부적 효과는 증가하는 뚜렷한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일·가족 촉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가사노동시간이 일·가족 촉진에 미치는 영향에 근로시간 유연성의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3-3은 채택되지 않았으나, 돌봄

노동시간이 일·가족 촉진에 미치는 정적 영향은 근로시간 유연성이 증가함에 따라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3-4는 채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선행연구와 다소 상이하였다. 기존 연구 결과에서 자녀 수가 많거나 자녀연령이 어려서 돌봄 시간이 길면 일·가족 갈등 수준이 높게 나타난 점(배지혜·서혜영·이숙현, 2002; 임효창·이봉세·박경규, 2005)을 반영하여, 연구가설을 돌봄노동시간이 일·가족 갈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는 가사노동시간만 일·가족 갈등과 정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돌봄노동시간은 오히려 일·가족 갈등을 완화시키고 일·가족 촉진을 강화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근로시간 유연성 증가에 따라 돌봄노동시간의 증가가 일·가족 갈등 감소와 일·가족 촉진 증가로 이어지는 경향성이 강화되었으며,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일·가족 갈등이 증가하는 효과도 약화되었다. 이는 높은 근로시간 유연성이 유자녀 여성 근로자의 돌봄 어려움 해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일·가족 갈등 감소와 일·가족 촉진으로 이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돌봄 및 가사노동시간 자체보다 돌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일·가족 갈등에 보다 유의미한 요인임을 지적한 선행연구(김경화, 2013)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가족 갈등에서 가사노동시간과 돌봄노동시간의 방향성이 상이하게 나온 결과는 돌봄 노동이 가사 노동과는 다른 성격임을 지적한 선행연구(안미영, 2016; 주은선, 2014)를 다시 한 번 확인해주는 결과이다. 또한 유자녀 여성 관리자는 일을 하면서 자녀돌봄 시간을 확보하길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다만, 본 연구에 사용된 여성 관리자 패널은 전체 여성 노동자가 아닌 여성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이므로 일반화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음으로 이 연구가 가지는 학술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이 연구는 기존 연구의 외연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함의를 가진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유급 노동시간의 양이 일·가족 갈등 및 촉진에 미치는 영향에 근로시간 유연성의 조절 효과를 보거나, 무급노동시간이 일·가족 갈등 및 촉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가사노동시간 및 돌봄노동시간의 양, 일·가족 갈등 및 촉진, 근로시간 유연성의 삼자의 관계를 조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는 근로시간의 유연성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여 논의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고, 가족 내 젠더 간 노동시간 분배 논의나 일·가족 양립 논의에서 유·무급노동시간의 양과 유연성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초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다만, 분석대상이 여성 관리자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해석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개인 및 가족, 조직 차원의 변수들을 모형에 최대한 포함하였으나, 제도적 차원의 변인이 조절변수인 근로시간 유연성 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한계로 남아있다. 제도적 차원의 논의는 후속 연구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여성 관리자 패널의 관리자용 자료를 분석하여, 조직수준의 변수를 사용하는 데 한계가 다소 있었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인사담당자용 데이터와 연계하여 여성관리자 비율 등 다양한 조직 관련 변수들을 포함한 보다 의미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크게 세 가지로 도출하였다. 첫째, 이 연구결과에서는 근로시간 유연성이 높을수록 돌봄노동시간의 일·가족 촉진 증가효과가 강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가족 양립 정책에서 일·가족 갈등 감소를 위한 접근이 주로 논의되나, 일·가족 촉진이나 조화 등 긍정적 측면을 강화하는 전략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다. 일·가족 조화에 대한 강화 전략으로 돌봄시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육아기 유연근무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노동자에게 돌봄시간을 확보해주는 것은 돌봄 공백 해소뿐만 아니라, 일과 가족을 양립하는 노동자의 시간 갈등을 완화하여 일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최근 육아휴직 외에 돌봄 시간을 확보해주는 방안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확대하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연령과 지급기간을 크게 확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일자리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보험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출생아 수 대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사용자는 7.8%에 그쳤다.

이처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활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먼저, 육아기 돌봄시간 확보를 위해 근로시간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일 근로시간 중 일부를 재택근무할 수 있는 육아기 부분 재택근무제를 도입하거나 육아기 재량근로시간제를 적극 실시하는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외에 육아기 돌봄시간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다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일자리 및 기업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의 상황이나 직종·직무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 모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즉, 기업이나 직종 등 일자리 상황별로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유연제, 근로장소 유연제 등 여러 형태의 유연근무제도를 조합하는 방식의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돌봄 친화적인 조직문화 확산이 일·가족 양립에 핵심적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에서 조직문화가 일·가족 갈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유연하고 평등한 조직문화는 근로시간 유연성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경직된 성과중심 조직문화일수록 일·가족 갈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가족친화인증'이나 '근무혁신 인센티브 제도',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제도' 등 기존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기업이 조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코칭 받을 수 있는 기업 컨설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의 상황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컨설팅을 전문화하여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정책의 방향성 설정에는 기업 대표나 경영진의 인식이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 기업 대표 및 경영진 인식 개선 사업도 보다 다양한 경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남성의 자녀돌봄 참여 제고를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여성 노동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무급노동시간이 일·가족 갈등 및 조화에 미치는 영향에 천착하여 출발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유자녀 여성 노동자의 절대적인 돌봄노동시간이 일·가족 갈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배우자와의 돌봄노동시간 차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이 적극적으로 자녀 돌봄을 함께할 경우에 여성 노동자의 일·가족 갈등 완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남성이 자녀돌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지 않는 노동문화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남성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함에 있어 아직까지 기업에 존재하는 돌봄 성역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박은정 외, 2023). 시간 지원 제도는 여성이 사용하는 제도라는 인식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 사업이 적극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기업 인센티브 지원 제도에 남성의 시간 제도 사용이 보다 더 반영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 투고일 : 2024년 4월 30일 ■ 심사일 : 2024년 6월 10일 ■ 수정일 : 2024년 6월 17일 ■ 게재확정일 : 2024년 6월 21일

참고문헌

고용행정통계. 고용보험통계 현황. https://eis.work.go.kr/eisps/rpt/reptDtl.do?menuId=030010010에서 2024.4.1. 인출

국미애(2013). "유연근무제와 노동시간의 젠더 정치: 시간제근무를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제30권 제1호. 3-34.

권은낭·엄승미(2021). "유연근무가 기혼 여성 관리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여성연구**. 통권 제108호. 99-129.

김경화(2013). "영유아와 초등학생 자녀를 둔 남녀취업자의 일/가족 갈등 인식: 성별과 관련 변인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제25권 제4호. 60-90.

김동식·김영택·정진주(2013). **맞벌이 여성의 일·가정 양립 갈등과 건강영향 연구: 근로시간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선희(2010). "공공조직에서 여성의 일-가정 (WFC) 결정요인 분석". **행정논총**, 제48권 제1호. 171-196.

김소영·진미정(2016). "부모의 미취학자녀 돌봄시간 관련요인 변화와 가족정책에의 함의". **가정과삶의질연구**. 제34권 제5호. 1-19.

김소정(2016). "맞벌이 여성의 일·가족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일·가족갈등과 일·가족촉진의 통합적 접근". **사회복지연구**. 제47권 제3호. 161-185.

김은수·최은영(2022). "유자녀 여성관리자의 특성에 따른 일-가정 부정 전이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통권 제113호. 165-197.

김인선·이동명(2009). "조직의 지원환경이 일-가족갈등에 미치는 영향". **산업관계연구**. 제19권 제2호. 67-94.

김준기·양지숙(2012). "기혼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사회적 지원의 효과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50권 제4호. 251-280.

김태희·오민지(2017). "일·가정 양립정책의 유효성과 조직문화". **현대사회와 행정**. 제27권 제4호. 147-168.

김현근·안성익(2016). "가정 친화적 업무환경이 일-가정 균형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심리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영연구**. 제31권 제4호. 27-62.

김희경·신지민(2023). "일·가정 양립 갈등 및 영향요인에 대한 성별 비교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4권 제1호. 223-250.

_____·조규진(2017). "공사조직 간 일가정 양립수준 및 영향요인 비교분석". **한**

국행정연구. 제26권 제2호. 217-246.
노혜진(2019). "시간빈곤과 이중빈곤의 실태와 영향요인-다양한 시간빈곤 개념 적용". **사회복지정책**. 제46권 제4호. 65-90.
류연규·백승호(2013). "일-가족양립정책이 여성의 일-가족 양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 연구: 여성 근로소득에 대한 정책의 직· 간접 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33권 제1호. 122-161.
박예은·윤미·이예솔·이효진·정익중(2016). "시간빈곤이 일·가족양립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미취학자녀를 둔 기혼취업여성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32권 제2호. 35-56.
박은정·이재희·박은영·김연진(2023). **평등한 돌봄권 보장을 위한 자녀돌봄 시간 정책 개선방안 연구(Ⅱ): 남성의 돌봄권 보장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박인숙(2022). "생태학적 관점에 기반한 유자녀 맞벌이 여성의 일-가족 갈등 및 촉진의 다양한 관련 변인: 차별적 현저성과 상대적 현저성을 중심으로". **가정과삶의질연구**. 제40권 제4호. 35-58.
방진아·허순임(2021). "근로시간 유연화가 여성 관리자의 일·가정 양립에 미치는 영향". **여성연구**. 통권 제111호. 37-66.
배지혜·서혜영·이숙현(2002). "사무직 남성의 '일-가족 갈등' 및 '가족-일 갈등'과 부모 역할 만족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7권 제2호. 43-64.
손영미·박정열(2015). "한국 기혼여성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관련 가치관이 일-가정 갈등 및 촉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7호. 203-215.
송다영(2014). "남녀 직장인의 무급노동시간 격차와 일·가족양립 정책에의 함의: 서울시 직장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제43호. 169-206.
_____·장수정·김은지(2010). "일·가족양립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직장내 지원과 가족지원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37권 제3호. 27-52.
안미영(2016). "한국 맞벌이 부부의 고용 형태와 가족 내 노동 분업의 젠더 불평등에 관한 연구". **경제와사회**. 통권 제112호. 13-40.
원숙연(2012). "취업여성의 일-가족 상호작용을 둘러싼 개인-조직-정책의 역학". **정부학연구**. 제18권 제3호. 267-295.
윤민지·공현정·윤수란(2021). "일-가정 갈등 예측요인에 대한 관련변인 메타분석". **인문사회 21**. 제12권 제1호. 2373-2387.
윤자영(2010). "모(母) 시간 배분 결정요인 분석". **노동경제논집**. 제33권 제2호. 27-52.

은기수(2009). “한국 기혼부부의 가사노동분업”. **한국인구학**. 제32권 제3호. 145-171.

이경희·김근주(2018). **시간 빈곤(Time-Poor)에 관한 연구**.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이민우·이영진·한재창(2008). “가족친화제도 도입을 결정하는 선행요인 및 결과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제8권 제4호. 183-214.

이수연·김효선(2017). “인지된 유연근무제 활성화가 조직성과와 일·가족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인사관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이진숙(2022).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구의 일·생활 시간”, **성인지통계시스템 분석 리포트(22-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혜정·송다영(2023a). “1999~2019년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의 유급-무급노동시간 및 분담율 변화와 영향요인”. **한국사회정책**. 제30권 제1호. 159-188.

_____·____(2023b). “미성년 자녀를 둔 기혼 남성의 무급노동시간량과 무급노동시간분담율 영향요인”. **한국사회복지학**. 제75권 제1호. 33-58.

임다희·탁성숙·이선우(2018). “조직문화가 일· 가정양립 갈등에 미치는 영향 경쟁가치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조직학회보**. 제15권 제2호. 29-56.

임효창·이봉세·박경규(2005). “기혼 직장인의 직장-가정갈등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연구”. **경영학 연구**. 제34권 제5호. 1417-144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3. 9. 4). 3.28. 발표 저출산 5대 핵심과제 ’24년 예산안 편성 현황. 보도참고자료.

장수정·송다영·김은지(2009). “일·가족 양립 정도에 대한 인식: 집단간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61권 제2호. 349-370.

정우진·김강식(2014). “근로시간과 일-가정 갈등 및 이직의향”. **질서경제저널**. 제17권 2호. 69-87.

정한나(2022). “시간 탄력적 근무제도가 직무 및 일·가정 양립 만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제31권 제2호. 31(2), 85-104.

정희정(2019). “일·생활 균형 및 성평등 현안과 유연근로제의 한계”. **국제사회보장리뷰**. 2019년 8호. 49-60.

조미라·박은정(202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조성호(2016). “부부의 시간배분 결정요인: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제39권 제1호, 57-79.

주은선(2014). “노동인가, 돌봄인가, 여가인가: 전일제 임노동자 맞벌이 부모의 시간배분에 대한 젠더 영향과 학력의 조절효과”. **사회복지연구**. 제45권 제3호, 5-34.

진미정·성미애(2012). “직장 유형에 따른 취업주부의 일 - 가족 균형 지각”. **가정과삶의질연구**. 제30권 제4호. 13-24.

채화영·이기영(2013). “육아기 맞벌이 남성의 일· 가정 양립 경험”.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제51권 제5호. 497-511.

최하영(2022). “일·가족 및 일·생활 상호작용 관련 개념과 척도 비교: 균형, 양립, 전이, 갈등, 촉진을 중심으로”. **가족정책연구**. 제2권 제1호, 1-24.

통계청(2019). **2019년 생활시간조사 지침서**. 통계청.

홍승아·이미화·김동기(2011). **유연근무제와 가족생활의 변화**.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황순옥·한상일(2013). 춘천시 공무원의 유연근무제에 대한 인식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지역발전연구**. 제22권 제2호. 71-93.

Aryee, S., Srinivas, E. S., & Tan, H. H. (2005). Rhythms of life: Antecedents and outcomes of work-family balance in employed parent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0(1). 132-146.

Berk, S. F. (1985). *The gender factory: the apportionment of work in American households*, NY: Plenum Press.

Coltrane, S. (2000). Research on household labor: Modeling and measuring the social embeddedness of routine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4), 1208-1233.

Craig, L. & Powell, A. (2011). Non-standard work schedules, work-family balance and the gendered division of childcare. *Work, Employment and Society*, 25(2). 274-291.

Davis, S. N., & Greenstein, T. N. (2013). Why study housework? Cleaning as a window into power in couples. *Journal of Family Theory & Review*, 5(2), 63-71.

Esping-Andersen, G. (2009). *Incomplete revolution: Adapting welfare states to women's new roles*. Polity.

Ford, M., Heinen, B. & Langkamer, K. (2007). Work and Family Satisfaction and Conflict: A Meta-Analysis of Cross-Domain Rela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2(1), 57-80.

Grandey, A. A., & Cropanzano, R. (1999). The conservation of resources model applied to work-family conflict and strai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4(2), 350-370.

Greenhaus, J. H., & Allen, T. D. (2011). Work–family balance: A review and extension of the literature. In J. C. Quick & L. E. Tetrick (Eds.), *Handbook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2nd ed., pp. 165–183).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Greenstein, T. N. (2000). Economic dependence, gender and the division of labor in the Home: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322-335.

Grzywacz, J. G., & Marks, N. F. (2000). Reconceptualizing the work–family interface: An ecological perspective on the correlates of positive and negative spillover between work and family.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5(1), 111.

Hallberg, D., & Klevmarken, A. (2003). Time for children: A study of parent's time allocation.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6(2), 205-226.

Ilies, R., Wilson, K. S., & Wagner, D. T. (2009). The spillover of daily job satisfaction onto employees' family lives: The facilitating role of work-family integr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52(1), 87-102.

OECD(2023). OECD Employment Outlook 2023.

Powell, G. N. & Butterfield, D. A.(2003). Gender, Gender Identity, and Aspirations to Top Management. *Women in Management Review*, 18, 88-96.

Steiber, N. (2009). Reported levels of time-based and strain-based conflict between work and family roles in Europe: A multilevel approach. *Social Indicators Research*, 93(3): 469-488.

Abstract

The Effects of Unpaid Work Hours of Women Managers with Children on Work-Family Conflict and Facilitation: The Moderating Effect of Flexible Working Hours

Eun Jung Park*·HyeJin Choi**·Kyoung Lan Hwang***

This study focuses on the triangular relationship among unpaid labor hours, work hour flexibility, and work-family reconciliation from a gender display perspective.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unpaid caregiving and household work hours of women managers with dependent children on work-family conflict and facilita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flexible working hours on these effects. Using data from the 2nd Wave of the Women Manager Panel in 2022, analysis was conducted on 922 women managers with minor children. The results indicate that household work hours have a positive effect on work-family conflict, while caregiving work hours have a positive effect on work-family facilitation. Furthermore, flexible working hours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giving and household work hours and work-family conflict, as well as between caregiving work hours and work-family facilitation. Specifically, higher work hour flexibility leads to a decrease in work-family conflict and an increase in work-family facilitation with an increase in caregiving work hours. An increase in the flexibility of working hours tends to mitigate the increase in work-family conflict. Based on the findings, policy recommendations are proposed, including expanding flexible working hours during childcare periods, promoting a childcare-friendly organizational culture, and providing support for paternal childcare.

Keywords : Unpaid Work Hours, Work-Family Conflict, Work-Family Facilitation, Flexible Working Hours

* First Author: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Corresponding Author: Expert Advisor, Social Security Committe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Co-Author: Research Fellow, Chungbuk Women Foundation

여성연구
The Women's Studies
2024. Vol. 121 No. 2 pp. 39~67
https://doi.org/10.33949/tws.2024.121.2.002

기혼 중년여성의 트로트가수 팬덤활동 참여와 생애 전환기 삶의 의미 탐구*

임혜경**·김혜원***·조혜영****

초 록

본 연구는 트로트가수 팬덤활동에 참여하는 기혼 중년여성들의 경험을 통하여 이들은 생애 전환기에 어떠한 변화들을 겪고 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40대부터 60대에 이르는 중년여성 10인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반복적 비교법에 의하여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에 따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중년여성들의 팬덤활동은 개인 차원에서 가족 프로젝트로 확장되었으며, 가족관계의 긍정적 변화에 기여하였다. 둘째, 팬덤활동 참여는 연구참여자들의 여가 패턴을 개별적·수동적 향유자에서 적극적인 집단 활동 참여자로 이끌고 있었으며, 이는 사회관계 형성 및 사회참여의 동력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끝으로 팬덤활동은 삶의 활력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빈둥지증후군 개선, 멘토를 향한 동일시 등으로 개인의 심리·정서 변화에도 기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관련 논의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중년여성, 팬덤활동, 생애 전환기, 삶, 의미

* 이 논문은 임혜경의 석사학위 논문 자료의 일부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제1저자 : 한남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전문상담사(hklim2080@nate.com)
*** 공동저자 :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부교수(wisdom77@gjue.ac.kr)
**** 교신저자 :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부교수(johye@gjue.ac.kr)

I. 서론

인간의 생애과정 중 중년기는 삶의 전환기라 할 수 있다. 자녀의 성장과 독립, 노부모 부양책임 증가, 가장의 직업역할 변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다. 이 과정에서 중년기 개인은 심리적 갈등이나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데, 특히 중년여성들은 폐경과 관련하여 외모 변화와 신체 기능 쇠퇴 등으로 불안과 우울을 호소하기도 하며, 성인 자녀의 독립에 따른 빈둥지증후군을 겪거나 가족 내 역할 수행 위축 등으로 무력감을 느끼기도 한다(송명자, 2013; 허제은·태영숙, 2014).

하지만, 중년기를 일방적으로 위기나 침체를 동반하는 시기라기보다,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모색하는 긍정적 '전환'의 시기로 보는 관점이 대두된다. 불안감이나 우울 등 부정적 측면보다는 내적 성찰을 통해 재적응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며 오히려 새로운 자아실현을 모색하는 적절한 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정옥분, 2019; Farrell & Rosenberg, 1981; Schlossberg, 1987). 중년기는 자신의 생애 전반을 돌아보며, 향후 맞이하게 될 삶을 재조명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며, 이 과정에서 부정적 정서에 대한 인지적 극복을 통해 새롭게 자기 탐색을 하거나 정체감 변화를 시도하는 데 적기라는 것이다(김세화·정혜윤·이승민, 2022; 김애순, 1993; 이윤진, 2023; Mezirow, 1991).

많은 선행 연구들은 건강한 중년기 이행에 기여하는 성인학습이나 사회활동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다양한 여가나 문화 활동, 평생 학습 참여 등은 건강한 생애 전환기 이행 및 자아실현 욕구 충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유정·박진영, 2019; 문상정·박상훈, 2022; 이려화·이희수, 2021; 이민영·이유우·한주희, 2015; 이주연·송성숙, 2021). 특히, 여가활동 참여 만족은 심리적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연 관람 등 문화활동은 중년여성의 스트레스 감소에 기여하며, 정서적인 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하였다(김정은, 2020).

한편, 오늘날 우리 사회의 중년들은 소득수준 향상, 고학력화, 미디어 사용 일상화 등으로 보다 다양한 여가 문화를 향유하게 되었다. 근래에는 청소년세대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왔던 팬덤문화를 형성하여 대중문화의 지형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김송희·양동옥, 2013; 김정은, 2020; 이한아름·성은혜·배소영, 2022). 이제 중년여성의 팬덤활동은 더 이상 생소한 현상이 아니며,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습을 띠며 나타나고 있다(김정은, 2020).

팬덤활동이 중년여성들의 여가활동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중년여성들은 무엇을 경험하고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등 중년여성의 새로운 생애 활동으로서 팬덤 수행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더욱이 현대 한국 사회 중년여성의 위기와 변화에 대한 이해를 제시하는 질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되는 가운데(김세화·정혜윤·이승민, 2022; 이시은·김진경·김분한, 2015), 본 연구는 중년여성들의 팬덤활동 참여 경험이 전환기적 삶에서 어떠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에 수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여가학 및 관광학 영역에서 중년여성의 팬덤활동이 진지한 여가로 성립되는지를 살펴보거나(이한아름·성은혜·배소영, 2022), 팬덤활동과 사회적지지, 삶의 의미 간의 구조적 영향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성은혜·이한아름·배소영, 2021), 팬덤문화 수용 과정에서 경험하는 중년여성의 정체성 재정립을 살펴보는 연구(김진하·김민지, 2022) 등이 있다. 하지만, 중년여성의 전환기적 삶의 변화와 관련하여 팬덤활동 참여가 어떻게 의미화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에 본 연구는 기혼 중년여성의 팬덤활동 참여에 대해 성인학습적 차원과 진지한 여가의 차원을 넘어서 생애 과정에서 어떠한 전환기적 경험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배경으로 중년여성의 보다 건강하고 원만한 생애 전환기 이행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기혼 중년여성의 전환기적 생애 과정

중년기는 생애과정상 청년기 이후이자 노년기 전 단계라 할 수 있다. 중년기를 구분하는 연령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이견이 있지만, 중년기 위기에 대해 개념화한 융(Jung)은 중년기의 시작을 대략 40세경으로 보았고, 인생 구조와 발달에 관한 저명한 연구자인 레빈슨(Levinson)은 대략 40세부터 65세 정도로 규정하였다(Levinson, 1978). 대체로 중년기의 범위는 35세부터 45세에서 시작하여 55세부터 65세 정도에 해당하는 생애기간이라 볼 수 있다(문상정·박상훈, 2022; 정옥분, 2019).

중년기는 성격 발달의 정점이자, 신체 및 인지, 심리·정서적 변화를 수반하

는 시기이다(문상정·박상훈, 2022; 이한아름·성은혜·배소영, 2022; 장혜경, 2021). 중년여성의 경우 급격한 신체적 노화는 완경 시기와 관련되며, 호르몬 불균형에 따른 갱년기 증상이 동반되어 안면홍조, 두통, 불면증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우울, 불안, 신경과민, 인지적으로는 집중력과 기억력이 감퇴하는 경험을 겪기도 한다(성은혜·이한아름·배소영, 2021; 이주연·송성숙, 2021). 가족 내에서도 성인 자녀 독립에 따른 가족 구조 및 기능의 재조직화, 노부모에 대한 부양책임 증가, 가장의 직업 역할 변화 등 다양한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정윤지·최명경·이준성, 2022).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이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는 낮아져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박순희, 2022).

중년기 위기감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경험하지만, 여성의 경우 가족 내에서의 역할 변화 및 일상생활 재구성 과정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문상정·박상훈, 2022; Burt & Stein, 2002; Rosenberg & Farrell, 1976). 대표적 심리 문제인 우울도 중년기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다(김태연·김동심, 2021; Burt & Stein, 2002). 실제로 2021년 「건강검진통계」에 따르면 중증 이상의 우울증상을 겪은 50대와 60대 남성은 18,316명이지만 여성은 33,380명으로 여성이 1.5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가통계포털, 2023). 특히 한국사회에서의 중년여성들은 양육과 모성을 여성의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자아실현의 우선적 방법으로 여기며 살아온 경우가 많았다. 실제 이러한 역할 과업이 종료되거나 미충족되는 경우 실망감과 허탈감을 겪게 되고, 이는 우울과 불안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으며, '빈둥지 증후군'으로 악화되기도 한다(박태경·박재연, 2019; 송명자, 2013).

한편, 심리적 위기감은 대체로 중년기에 생애 전반을 돌아보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의식을 재조명하고, 지나온 삶에 대해 성찰과 재평가를 경험하는 건전한 자아로부터 오는 정상적 과정이라는 시각도 꾸준히 개념화되어 왔다(Levinson, 1978). 중년기는 인생 전반기의 절정을 지나 후반을 시작하는 전환점으로 새로운 자아를 찾고자 하는 시기로 '개별화(individualization)'라는 발달과업을 이루는 시기이다. 즉, 기존에 집중해왔던 외적 자아실현에 대한 관심이 내적 자아로 전환되며, 새로운 자아통합을 추구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Jung, 1933; 정옥분 2019에서 재인용). 이와 함께, 중년기는 개인적 성취 위주의 삶에서 벗어나 사회공헌을 염두에 두는 시기로 사회적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의미있는 활동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는 시기라고 개념화되어 왔다(Erikson, 1968).

인간의 전 생애 발달과정에서 각 시기별 인생 과업을 제시한 에릭슨에 따르

면 중년기의 발달 과업은 생산성 대 침체(generativity vs stagnation)로 구분되는데(Erikson, 1968), 여기서 침체감에 빠지지 않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생물학적 세대 전수뿐 아니라 사회적 기여와 문화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정옥분, 2019). 직업이나 사회활동을 병행했던 경우보다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몰입해온 중년 기혼여성들의 경우 자신의 삶에 대한 회의, 무기력증이나 소외감을 더 느끼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적절한 활동을 통해 가족에 대한 의존적 관계를 탈피하고 자기의 삶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생산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지적된다(김금순·홍경선, 2019; 김태연·김동심, 2021). 즉, 가족과의 관계 재정립 및 자아를 찾는 것은 중년기 여성의 중요한 생애 과제라 할 수 있다(박태경·박재연, 2019; Gould, 1978).

2. 기혼 중년여성의 여가와 팬덤활동 참여

기혼 중년여성들의 전환기적 삶에서 가정 밖 사회활동 참여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왔다.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중년여성들의 평생학습 참여(김유정·박진영, 2019; 이려화·이희수, 2021; 이윤진, 2023), 진지한 여가로서의 취미활동이나 문화예술 활동 참여(강숙영·김승일, 2018; 이민영·이유우·한주희, 2015; 이주연·송성숙, 2021; 이진희·이상희·허진무, 2020; 정윤지·최명경·이준성, 2022), 자원봉사 활동 참여(김금순·홍경선, 2019; 이보람·이정화, 2014) 등이 중년기 여성의 심리적 안정감과 삶의 질 개선, 신체 건강 등에 기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적절한 여가활동 참여의 긍정적 효과가 보고되어 왔다(이한아름·성은혜·배소영, 2022; Logan, 1986). 중년여성의 여가 참여는 생활 만족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인생 후반기 정체성 재발견과 삶의 의미를 찾는 데도 도움을 준다(이한아름·성은혜·배소영, 2022; Liechty, Yarnal & Kerstetter, 2012). 여가 참여는 중년기 여성의 삶에 중요한 심리적 가치를 제공하는 치유적 효과를 보이며(문상정·박상훈, 2022), 여가 참여 과정에서 사회적지지를 얻게 되는 개인은 다양한 부정적 경험을 하더라도 스트레스로 인식하지 않거나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해도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힘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손지원, 2015).

한편, 여가활동의 한 분야로 근래에는 중년기 여성들의 팬덤활동 참여가 부각되고 있다. 팬덤은 스타의 팬 집단이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새로운 문화현상이다(정재민, 2010; Jensen, 1992). 팬덤활동은 청소년

층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지만, 점차 연령대를 넓히면서 중장년의 여가로 자리 잡게 되었다. 디지털미디어와 IT확산을 통해 오늘날의 팬덤활동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의 활발한 참여로 이어지고 있으며, 스타메이킹에서부터 관련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유미래·안성아, 2023; 이재원, 2021). 특히 최근 중년들은 경제력 확보, 비교적 높은 교육 수준, 미디어 사용 보편화, 건강관리 등을 통해 앞선 세대의 중년기와는 다른 보다 적극적인 삶의 양식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의 적극적 참여가 새로운 활동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윤진, 2023; 임미정·최규석, 2022).

미디어 소비와 관련하여 중년기 여성의 여가는 TV프로그램 시청 위주의 수동적, 소극적 여가가 주를 이루어 왔다. 하지만, 팬덤활동 참여로 적극적이며 진지한 여가로 전환되는 계기를 맞게 된다(이한아름·성은혜·배소영, 2022). 진지한 여가는 일상적 여가를 넘어서 보다 전문가 수준을 지향하며, 인내, 전문성, 지속적인 노력, 혜택과 보상, 독특한 문화, 정체성 형성이라는 요인들로 구성된다(Holder, Coleman & Sehn, 2009; Stebbins, 1982; 2007). 팬덤활동 참여자들의 경우 진지한 여가에서 나타나는 인내와 노력 등을 체험하고 나아가 우정, 행복, 삶의 의미 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인다(이한아름·성은혜·배소영, 2022). 이러한 배경에서 진지한 여가는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 관련성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정윤지·최명경·이준성, 2022; Brown, McGuire, & Voelkl, 2008; Heo et al., 2010; Siegenthaler & O'Dell, 2003).

그간 중년여성 팬덤활동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으로 연구되어왔다. 가부장적 제도로부터 요구받아왔던 역할 수행에 대한 일탈로 보는 시각(최유나, 2007), 스타를 뒷바라지하며 키워내는 서포터로서의 역할 수행(김송희·양동옥, 2013), 중장년층의 새로운 놀이문화 탄생(김진하·김민지, 2022) 등의 관점들이 있다. 보다 최근에는 중년기 생산성과 관련하여 긍정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중년여성들의 팬덤 참여에 대해서 사회관계 확장과 새로운 지식 습득, 능동적이고 활기찬 모습으로 자기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김정은, 2020; 김진하·김민지, 2022; 김태연·김동심, 2021; 성은혜·이한아름·배소영, 2021).

팬덤활동은 오프라인 활동과 온라인 활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과거에는 가수가 나오는 콘서트 공연 및 방송을 직접 관람하거나 팬 미팅에 참석하는 오프라인 팬덤활동이 대부분이었으나(정민우·이나영, 2009), 2000년대 이후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공식 팬카페, SNS(인스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를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참여하는 온라인 팬덤활동으로 활동 영역이 넓어졌으며, 스타와의 관계도 숭배의 대상에서 친밀감과 정서적 연결의 대상으로 변화

하고 있음을 보인다(나은경, 2020).

중년여성들의 팬덤활동은 개인적 활동과 사회적 활동으로 개념화되기도 하는데, 전자의 경우 혼자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활동으로 보는 반면, 후자의 경우 다른 팬들과 함께 수행하는 활동으로 보고 있다. 두 가지 차원의 활동 모두 사회적지지의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성은혜·이한아름·배소영, 2021; 유미래·안성아, 2023). 선행연구들은 팬덤활동을 통한 사회적지지의 획득은 삶의 의미 추구 및 심리 정서적 보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중년세대들은 상호작용 욕구가 높지만, 이를 충족할 수 있는 관계 형성 기회 및 만족 수준은 감소한다고 지적되고 있다(성은혜·이한아름·배소영, 2021; Cartensen, 1992). 반면에 팬덤활동은 중년여성들이 함께 참여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공감, 소속감, 유대감, 연대의식 경험, 집단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며, 이 과정에서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는 것이다(김진하·김민지, 2022; 유미래·안성아, 2023). 특히, 자녀 양육이나 가족 부양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 늘어난 여가시간을 활용할 여지가 많아지는 중년기 여성의 경우 사회적지지원으로 기능하는 적절한 여가 활동 참여는 무엇보다 긍정적인 생애 전환기 모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인다(성은혜·이한아름·배소영, 2021; Coleman & Iso-Ahola, 1993).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중년여성이 팬덤활동 참여과정에서 경험하는 생애과정에서의 전환기적 의미는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팬덤활동 참여 경험을 탐구하기 위해 특정한 변인 간 관계 규명이나 가설 검증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생애 전환기 삶의 체험에 대한 개방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그에 따른 연구방법으로 일반적 질적 연구 방법(Merriam, 2009)을 사용하였으며, 연구주제를 잘 드러내줄 수 있는 연구참여자 섭외를 위해 목적적 표본 추출법(purposeful sampling)을 적용하였다(Creswell, 2013).

기혼 중년여성의 팬덤활동 참여와 삶의 의미 변화라는 주제에 초점을 두었기에 중년기에 해당하는 4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에 이르는 참가자들을 선정

하였으며, 비교적 활발하게 팬덤활동을 하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참가자들을 섭외하는 과정에서는 팬클럽활동을 하는 연구자의 인맥을 활용하였다. 연구자 또한 팬으로 활동하며 팬클럽 회원들과 친분을 이어가고 있기에 비교적 어렵지 않게 연구 참여에 동의를 구할 수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총 10인이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은 주로 중부권 지역인 D시와 S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 배경은 콘서트 관람을 위해 장거리 이동시 함께 차량을 섭외하여 동승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근지역 거주자들과 네트워크가 형성되었고, 이들을 대상으로 섭외가 이루어진 데 기인한 것이다. 참가자들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40대가 4명, 50대가 5명, 60대가 1명이었다. 이들은 대체로 20대 이상의 성인 자녀들을 두었으며,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자들 모두 과거에 팬클럽 활동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이 공통적이며, 현재 참여하고 있는 팬클럽 활동을 한 기간은 8개월부터 5년까지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모두 일반 회원이며, 팬클럽에서 맡고 있는 직책은 없다. 팬클럽 참여의 시작은 아침 방송에서 해당 가수를 접하고부터 좋아하게 된 한 명의 참가자를 제외하고는 2020년에 종합편성 채널에서 방송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을 접한 뒤 가수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연구참여자의 배경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배경

참여자	나이	가족관계	직업	지역	활동 경력	과거 팬클럽
A	48	남편 56세, 딸 26세, 아들 21세	심리상담사	D시	3년	없음
B	47	남편 53세, 아들 24세, 딸 20세	회사원	D시	5년	없음
C	51	남편 51세, 딸 17세, 15세	영업사원	D시	3년	없음
D	47	아들 23세, 딸 20세, 아들 14세	생산직	D시	3년	없음
E	57	남편 60세, 딸 29세(기혼), 아들 27세	방문교사	D시	3년	없음
F	61	남편 63세, 딸 36세(기혼), 딸 33세(기혼), 아들 31세	조리사	S시	3년	없음
G	52	남편 55세, 딸 27세(기혼), 딸 26세	간호사	D시	3년	없음
H	54	남편 56세, 아들 28세(기혼), 24세	식품 가공업	D시	3년	없음
I	48	남편 51세, 아들 24세, 아들 22세	회사원	D시	8개월	없음
J	55	남편 58세, 딸 30세(기혼), 아들 28세(기혼)	과외교사	S시	3년	없음

2.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을 위해서 10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개인 인터뷰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1차 자료수집은 2022년 1월에 대면으로 진행하였고, 개인 인터뷰는 60분, 그룹 인터뷰는 3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인터뷰 내용을 점검한 후 부족한 부분은 오프라인 모임과 전화 인터뷰 등을 통해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수시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수행 외에도 참여자들은 연구자가 속한 특정 가수 팬클럽 소속으로 함께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공식적이고 비구조화된 방식으로 인터뷰를 수행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 카페활동과 오프라인 활동을 함께 하면서 참여관찰을 통한 부차적 자료수집을 병행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는 라포 형성으로 이어졌으며 보다 쉽게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자신의 팬덤활동 경험에 대한 진솔하고 풍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인터뷰를 통해 연구자가 파악하고자 하였던 것은 중년기 기혼여성의 삶에서 특정 스타 가수 팬으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던 경험과 삶의 변화, 그리고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등이었다. 이를 위해 팬덤활동 참여과정에서 나타난 일상생활의 변화,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변화, 심리·정서 변화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진행은 반구조화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 방식을 취하여 연구참여자들이 개방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팬덤활동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뷰는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은 뒤 녹음되었으며, 녹음된 인터뷰 자료는 전사 과정을 거쳐 축어록으로 작성되었다.

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질적 자료 분석의 대표적 방법인 반복적 비교법을 활용하였다(유기웅 외, 2018).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심층 인터뷰 전사자료이며, 참여관찰 자료는 인터뷰 자료 이해를 위한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전사자료로부터 주요 내용을 범주화해가는 반복적 비교법을 적용하기 위해 우선 작성된 축어록 반복읽기를 하며, 해당 연구 주제와 관련된 개념과 범주들을 도출하였다. 연구 문제와의 관련성을 고려하면서 전사자료의 의미있는 진술에 밑줄치기 및 키워드를 부여하는 개방코딩을 시작하였으며, 개방코딩된 개념들은 다시 범주로 묶어내었고, 범주들은 다시 상위 범주로 포괄하는 범주화의 과정을 거쳤다.

전사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자가 해석한 내용에 대해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참

여자 확인(member check)을 거쳤다(유기웅 외, 2018). 이를 위해 인터뷰 내용과 그 응답에 대한 범주화 및 분석 결과를 연구참여자들에게 제시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그리고 범주화 과정의 편향성을 줄이기 위해 질적 연구 분야 전문가인 교수 1인, 심리상담 분야 교수 1인과의 논의를 거쳐 분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연구 윤리 준수를 위해 연구 시작부터 연구 결과 도출까지 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고지하였다. 개인 신상과 관련된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고 모든 자료는 연구 논문 작성 목적으로만 활용할 것이며, 논문 완료 후에는 폐기함을 안내하였고,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연구 참여 철회가 가능함을 고지하였다. 또한 인터뷰 참가자의 사전 동의하에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였으며, 음성파일과 전사 자료는 논문 작성을 위해서만 활용할 것이고 그 외의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명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개인 활동에서 가족 활동으로 확장

1) 가족들의 지원을 받는 중년여성 팬덤활동

연구참여자들의 팬덤활동은 개인적 참여를 넘어 가족 구성원들이 조력자나 동반자의 역할로 확장되고 있었다. 예컨대, 팬덤활동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가수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각종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기도 하고, 음원 순위 상위권 자리매김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특징적인 점은 이러한 활동을 혼자 하기보다는 가족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매체 활용에 보다 능숙한 가족 구성원들의 조력 하에 음원 스트리밍이나 투표, 콘서트 표 예매를 시도함으로써, 중년 어머니의 관심사가 가족 공동의 프로젝트가 되기도 하였다. 이들의 자녀들은 대부분 20대에서 30대에 이르는 성인 연령대에 해당하므로 어머니의 활동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 음원 스트리밍, 투표 등 관련 사항을 보며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있어요. (참여자B)
>
> 어떻게 하면 가수를 응원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온 가족이 콘서트 표 예매에 도전해서 예매에 성공하면 가수를 응원하러 콘서트도 다녀오고 있어요. (참여자G)
>
> 콘서트 표 예매 날이 되면 온 가족이 표 예매하느라 함께 모여서 표 구매 도전을 합니다. 저를 위해 그런 노력을 해주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에게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여자F)
>
> 정규앨범이 나올 때 앨범을 구매하여 주위에 나눠 주기도 하고 전국 콘서트도 갈 수 있는 한 (가족) 모두 가서 응원하고 있어요. (참여자H)

이러한 가족 협조와 지원이 이루어지는 팬덤활동은 가족의 우려를 배경으로 하거나, 비밀스러운 사적 활동으로 수행되는 10대와 20대 팬덤활동 참여 구조와는 차이가 있다(조해인, 20210). 중년여성들은 생애주기에서 가정과 일터에서의 역할 과업을 어느정도 마무리한 뒤에 이루어지는 보상으로서의 활동이자 여가로서의 팬덤활동으로 의미화되며, 이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은 비교적 긍정적이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2) 가족관계 변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역동으로 작용

가족 구성원들은 온라인 활동 지원뿐 아니라 연구참여자와 함께 콘서트 관람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험은 가족관계 변화에 기여하고 있었다. 가수의 콘서트 표 예매 자체가 너무 힘들다고 하여 일명 '피케팅(치열한 티케팅)'이라고 불리는데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입장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이처럼 어렵게 예매에 성공한 뒤 콘서트를 보게 되면 콘서트가 더욱 소중하고 의미있게 다가온다고 하였다. 그리고 콘서트 참여는 그동안 소원했던 가족관계를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거나 가족 구성원을 더 잘 이해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 제가 형제가 다섯 자매인데 다섯 자매가 모두 같은 가수의 팬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사이가 안 좋은 동생이 있었는데 팬덤활동을 통해 콘서트도 함께 다니고 함께 모여있을 때는 이야기 화제가 당연히 좋아하는 가수인데 가수에 대해 얘기할 때는 서로 웃고 떠들다 보니 안 좋았던 동생과의 사이도 좋게 변화되어서 지금은 너무 좋아요. 다 가수 덕분인 것 같아서 가수한테 너무너무 고마워요. (중략) 다섯 자매가 콘서트에서 나란히 앉아 같은 가수를 응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좋아 보이지 않나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합니다. (참여자E)

> 한번은 콘서트를 남편과 같이 간 적이 있는데 가수를 좋아하는 저한테 맞춰 주려고 남편이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고 콘서트틀 갔다 온 이후로는 남편도 노래 정말 잘한다고 왜 좋아하는지 알겠다고 인정해주어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참여자G)

부정적인 가족 사건으로 우울하거나 침체된 일상을 보내던 참가자들의 경우 스타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 활동은 침체되었던 가족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으며, 남편과의 갈등으로 힘든 날들을 보내던 참가자는 팬덤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가족관계에서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팬덤활동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에 대한 과도하거나 부정적 관심이 스타 가수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되면서,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가 개선된 것이다.

> 남편과 사별 후 항상 우울해 있었는데 가수를 좋아하게 된 이후 즐겁고 행복해하는 저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좋아했고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었어요. (참여자D)

> 가수의 존재를 알기 전에는 매일 술을 먹고 늦게 오는 남편으로 인해 남편한테 잔소리도 많이 하고 심적으로 힘들었는데 지금은 관심이 가수에게 향하게 되니 남편에게 잔소리도 줄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 남편도 저의 잔소리가 없어지니 좋아하고 관계가 좋아졌어요. (참여자I)

2. 사회적 유대 형성 및 사회참여 확산

1) 개인적·수동적 향유에서 적극적 집단 활동 참여로 전환

팬덤활동 참여 이전에 연구참여자들의 여가 시간은 주로 TV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소극적·수동적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우연히 TV 종합편성 채널의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된 후 해당 가수를 알게 되고 좋아하게 되면서 이들의 여가 향유 패턴은 변화하게 된다. 이들의 가수에 대한 관심은 팬카페 가입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이는 본격적인 팬덤활동 참여의 동력이 되었다. 카페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활동은 지역 소모임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팬들과 함께 활동을 지속하게 되었다. 요컨대, 연구참여자들의 온라인 팬카페 가입과 카페를 통한 팬덤활동 시작은 단순 미디어 시청이라는 소극적 여가 활동에서 적극적 활동으로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나아가 진지한 여가(Holder, Coleman & Sehn, 2009; Stebbins, 1982) 향유로 전환 계기를 맞게 된다.

2020년 1월부터 TV경연 프로그램에 나온 것을 보고 그때부터 좋아했어요. 팬카페에 가입하면서 지역적으로 소모임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소모임에 참석하여 팬덤활동을 시작하였어요. (참여자A)

2020년 1월 TV 경연을 본 후 아! 이 사람 반듯해 보이고 홀어머니를 생각하며 노래하는 모습이 아주 감동적이다. 노래를 너무 잘해서 그때부터 좋아하게 됐고 팬카페에도 가입했어요. 이후에 팬카페에 D, S시 지역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20년 5월에 정모에 참여하게 된 이후에 팬들을 만나 본격적으로 팬덤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참여자B)

경연 프로그램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좋아하게 됐고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을 느끼고 싶고 소속감도 느끼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 가수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가 그 분야에 1위를 하는 최고의 가수로 만들어 주고 싶은 생각도 들더라구요. 또 나와 같이 같은 가수를 좋아하는 팬들과 같이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어서 팬덤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자E)

2) 지속적 교류집단 형성

연구참여자들은 같은 가수를 좋아하는 팬들을 만남으로써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단순히 특정 가수에 대한 팬으로서의 활동을 넘어서서 이들은 비슷한 생애주기에 놓여 있기에 경험하는 삶의 애환이나 부정적 감정, 우울감 등에 대해 토로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대인관계 속에서 연구참여자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격려와 위로를 주고받게 된다고 하였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지역 전체 모임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소모임을 만들어 교류하는 등 다양한 사회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는 팬덤이 중년여성들을 위한 사회적 교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이한아름·성은혜·배소영, 2022; Kim & Kim, 2014)

가수로 인해 저와 똑같은 팬 중에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났어요. 항상 같이 어울리는 팬들이 있는데 소모임을 만들어 가수가 갔던 발자취를 따라 함께 투어도 하고 너무 재밌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게 되고 대인관계의 폭이 넓어진 것 같아요. (참여자F)

기쁨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인 팬들을 만나게 된 점이 좋고 팬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즐거움이 배가 된 것 같아요. (참여자J)

공식 팬카페 및 지역 소모임 등으로 저와 같은 팬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전에는 몇몇 지인들만 만나고 대인관계의 폭이 좁았는데 이제는 팬덤활동 이후에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나와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팬들을 만나니 너무 좋은 면이 많아요.

>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상대방에 대해 더 이해하게 되고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목적을 갖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그냥 좋아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참여자C)

3) 소속감과 연대감 형성

연구참여자들의 사회관계 확장 경험은 단순히 관계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집단에의 소속감으로 이어진다. 새로운 대인관계 형성 과정에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집단을 형성하고, 그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은 가족이나 직장 이외 또 다른 삶의 지향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며, 소속감 경험은 삶의 활력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 팬덤활동을 하면서, 나와 같은 팬들과 함께 감정과 생각에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친밀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이러한 새로운 대인관계는 가족들에게만 얽매이지 않고 좀 더 나만의 독립적인 삶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스트레스도 줄어들어 나의 에너지가 되어 제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참여자A)

> 일상이 무료했는데 팬덤활동을 통해 같이 응원하는 팬들도 만나고 가수에 대해 정보도 공유하고 즐거운 마음을 공유할 수 있어서 삶의 기쁨이 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일할 때도 열정이 생겼고 TV에서나 콘서트 공연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행복했고 많은 사람을 알게 되어 너무 좋아요. 나 혼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팬과 팬덤활동을 하면서 일종의 소속감도 느끼게 되었고 나의 스타는 저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 주었어요. (참여자B)

팬으로서의 삶은 소속감 외에도 일종의 연대의식을 공유하는 양상을 띠고 있었다. 특정 가수를 좋아한다라는 공감대는 낯선 타인과의 거리감을 좁히고, 정서적 교감을 형성하는 배경으로 자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개인의 성향이나 태도도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소극적인 성격도 팬덤활동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변화됐어요.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가 나올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사장님한테 가서 가수 팬이냐고 물어보고 맞는다고 하면 서로 너무 반가워하고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그만큼 팬이 많다는 것에 뿌듯함이 생기고 자랑스러워요. (참여자H)

4) 적극적 사회 참여자로 변화

연구참여자들은 스타를 좋아하는 팬들 간 사회관계 형성을 넘어 사회 전반에 대한 참여까지 활동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스타가 행하는 기부와 사회 공헌 활동에 대해 공감하면서 적극적으로 봉사와 기부를 행하고 있었다.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와 함께 뜻깊은 일을 할 수 있음에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야겠다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이처럼 팬덤은 대안적 사회공동체로서 소속감을 제공할 뿐 아니라, 적극적 사회 참여의 기반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이한아름·성은혜·배소영, 2022), 이러한 참여는 중년여성의 평생학습동아리가 수행하는 타인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역할 확장 기능(김유정·박진영, 2019)을 수행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가수가 기부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역시 내 가수가 인성이 바르고 좋은 가수라는 것을 느끼며 저도 기부에 동참하고 내가 팬이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함을 느껴요. 기회가 되면 기부에 계속 참여하고 싶어요. (참여자E)

> 기부 활동은 예전에 장마철에 정말 큰 피해를 본 수재민들이 많이 발생하여 가수와 소속사가 함께 2억을 기부했다는 얘기에 팬카페에 다 함께 하자는 공지가 올라왔고 그걸 보고 저도 같이 참여하는 의미에서 기부하였습니다. 그때 기억으로 가수 팬덤 이름으로 총 9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부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항상 좋은 본보기가 되어 주고 인성 좋은 내 가수의 팬이라는 것에 소속감이 느껴졌고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참여자F)

> 기부 활동은 매년 가수의 생일마다 지역 방에서 모금하여 지역 가까이에 있는 미혼모 및 한부모인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고 있습니다. 기부함으로써 보람도 되고 나의 가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회가 되면 꾸준히 하고 싶어요. (참여자J)

팬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수입이 적어서 김밥이나 라면으로 간단히 끼니를 때우며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는 공동의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무명 시절 여유가 없는 가운데 소액이나마 꾸준히 기부를 해왔던 것을 알고 있다. 가수가 유명해진 이후에도 수재민이 발생하거나 큰 산불이 났을 때 이재민을 돕기 위한 구호금 기부, 첫 광고를 찍은 광고 수입금 기부, 그리고 매년 가수 본인의 생일날에 거액의 기부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선행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이처럼 스타의 선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공유는 지속적인 사회 공헌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심리 정서적 변화

1) 삶의 활력소 획득

하루하루의 삶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거나 무료함을 느껴왔던 연구참여자들은 팬덤활동을 통해 새로운 삶의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대부분은 팬덤활동 참여로 삶의 활력소와 즐거움을 얻었다고 답하였다. 팬덤활동을 통해 삶의 긍정성과 활력을 얻음은 물론이고, 스타 가수는 '마음의 치료사'로 자리매김되기도 하였다. 특히 생애주기상 중년기는 쉼없이 달려오던 삶의 과업이 어느 정도 완수되는 시기이므로, 삶의 공허함이 느껴지기 쉽다. 이 시기에 심리적 무기력이나 침체감에 빠지기 쉬우며, 여러 가지 신체와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게 된다(송명자, 2013; 정옥분, 2019). 이러한 상황에서 새롭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대상과 집단이 생기면서 연구참여자들은 중년기의 심리정서적 전환기를 맞게 되는 것이다.

> 특별히 재미있는 일이 없이 하루하루 그냥 살았는데 지금은 가수를 좋아하고 팬덤활동을 하면서 인생 후반의 삶이 행복해지고 내 삶의 활력소가 생겼어요. (참여자F)

> 좋아하기 전에는 삶이 무료했는데 가수를 좋아한 이후에는 내 삶이 활기차 게 변화됐어요. (중략) 가수가 나오는 영상만 보면 저도 모르게 자동으로 미소를 짓게 되어 가족들이 저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신기해하기도 하고 좋게 변한 것에 대해 덩달아 좋아합니다. (참여자G)

> 저에게는 마음의 치료사예요.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키워야 할 나의 막내아들 같은 존재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면 투표를 많이 해서 순위를 1등 시켜줄까 하는 마음이 생기고 BTS와 투표 1, 2위를 다퉜을 때는 투표에서 진 이후에 내 자식이 경쟁에서 진 것처럼 매우 상심이 컸어요. 어떻게 해서 가수의 전화번호를 알게 됐는데 전화한 적은 없고 그냥 전화번호만 저장해놓고 있어요. 전화 통화는 안 해도 그냥 단순히 번호를 알고만 있다는 게 왠지 마음 든든하고 그냥 다 좋아요. (참여자I)

중년 어머니의 긍정적 심리 정서는 가족 분위기 전환에도 긍정적 기여를 하게 된다. 중년기에 무기력해지거나, 신체 기능 쇠퇴 등으로 우울감, 가족에 대한 원망 등 부정적 감정이 악화되기도 하고 가족 관계도 부정적 기류가 흐르는 등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박순희, 2022). 그에 반해 긍정

적 활력소를 얻음으로써 중년 기혼여성 개인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심리 정서적 측면도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생각이 부정적인 편이었는데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아픈 데가 많았는데 좋아하는 가수가 생기니깐 생활의 활력소가 생겨서 그런지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가족들도 좋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제 삶이 즐거워졌어요. (참여자H)

> 매일 밤늦게까지 과외만 하고 특별히 재미없는 삶이었는데 가수를 좋아하고 난 이후에는 즐거움을 찾는 삶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동적인 삶에서 능동적인 열정적인 삶이 되었습니다. 2023년 2월에는 딸이 표 구매를 해주어 해외 첫 콘서트인 LA 공연도 갈 예정으로 생각만 해도 너무 설렙니다. 남편이 허락하여 우리 집에 방 하나 전체를 가수의 사진과 각종 굿즈 상품들로 가득 채워 아예 ***(스타) 방으로 꾸며놓고 거기서 차도 마시고 저만의 (공간에서) 즐겁게 지내는데 너무 좋아요. 남편도 저의 행복한 삶을 적극적으로 응원해주고 있어요. (참여자J)

2) 빈둥지증후군의 개선

기존에 같이 살던 자녀가 독립하게 되면 중년여성은 슬픔, 외로움과 상실감 등 빈둥지증후군을 겪게 될 수 있다. 자녀가 독립하여 집을 떠남으로 인해 슬픔과 외로움, 상실감으로 우울감을 겪게 되는 중년여성에게 팬덤활동은 우울감 감소 및 삶의 활력소이자 원동력이 되는 긍정적인 정서 변화를 돕게 되는 것이다. 기혼 중년여성들은 자녀의 독립, 남편과의 관계 소원 등으로 가족으로부터 위로를 받거나 에너지를 쏟을 대상이 부재한 경우가 많았지만, 스타를 향한 에너지와 열정을 쏟을 기회를 찾게 되어 활력을 얻게 되었다는 기존 연구결과와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이한아름·성은혜·배소영, 2022).

> 자녀가 셋인데 첫째와 셋째는 같이 살고 있고 둘째는 결혼을 하여 독립하였는데 둘째가 결혼하고 처음에는 딸이 집에 없다는 것에 매우 허전함을 느꼈고 서운한 마음도 들고 우울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팬덤활동으로 인해 관심도가 아무래도 가수에 있다 보니 우울했던 마음도 금방 괜찮아졌던 것 같아요. (참여자F)

> 자녀가 학업으로 타지로 가서 독립하고 난 이후에 처음에는 홀가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허전했어요. 이제 내가 할 일이 없는 것 같아 빈둥지증후군이라는 것도 그때 당시 겪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가수를 좋아하면서 마음의 외로움이 없어졌어요. (참여자I)

> 자녀가 졸업 후 취업할 때까지 같이 계속 살다가 결혼해서 나간 거라서 딸 방을 볼 때마다 매우 허전하고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같이 살 때는 밥도 자주 먹고 여행도 가고

> 했었는데 이제는 결혼해서 독립하고 나니 이제 내가 할 일이 없어진 것 같고 처음에는 마음이 매우 힘들었는데 가수를 좋아하고 난 이후에는 아무래도 관심이 가수에게 가다 보니 그런 마음이 없어지고 이제는 마음이 편해요. (참여자J)

3) 삶의 멘토로서 동일시 대상 획득

스타의 삶의 궤적은 이들에게 동일시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스타 가수를 이상화하는 가운데, 팬들은 모방 행동을 하는데, 가수가 착용한 의류나 신발, 액세서리 등을 따라 구매하기도 하고 가수가 하는 행동(기부 활동, 봉사 활동 등)을 따라 하며, 가수가 다녀간 식당, 여행지 등을 따라다니며 같이 경험하고 싶어 한다.

> 내 가수가 입고 다니는 옷이나 신발, 액세서리 등을 검색하여 똑같이 하고 다 니고 싶은 생각에 구매도 하고 투표에서 1위를 하면 내가 1위 한 것처럼 너무 기쁘고 만족감을 느껴요. 그리고 알게 된 팬들과 함께 웅지 순례*를 다니고 있어요. 가수가 자주 갔던 식당이나 카페, 여행지 등을 팬들과 같이 돌아다니고 구경하며 만족감을 느끼고 있어요. (참여자I)

> 어떻게 하면 가수와 함께할까 하는 마음에 입고 다니는 옷, 액세서리 등 모든 것을 다 따라 하고 싶고 무명 때 자주 갔던 식당이나 여행지도 다 가서 가수의 발자취를 느끼고 싶어서 팬들과 함께 다니고 있어요. (참여자G)

기존에 이루어진 연구들에서는 10대나 20대 팬덤에서 나타나는 동일시는 과도한 유명인 숭배, '유사 연애'에 대한 갈망 등 병리적 현상으로 치닫는 부작용도 있음이 지적되었다(김수아, 2011; 정재민, 2010). 반면에 본 연구참여자들에게 스타 가수의 존재는 삶의 멘토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 가수로서의 탁월함을 넘어서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노력해 온 인생 스토리, 성공한 뒤에도 자만하지 않고 노력하고 베푸는 선행을 실천하는 모습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은 높은 호감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단순히 스타 추종을 넘어서, 스타를 삶의 지향으로 삼게 되었고, 스타의 선행을 본받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등 스타의 선행이나 품성에 대한 이상화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중년여성 팬덤에서 드러나는 동일시는 진지한 여가의 구성요소로서 자신들의

---

* 스타의 발자취를 따르는 여행으로 가수 이름 중 마지막 글자를 따서 명칭을 만들었으며, 가수가 어렸을 때 자랐던 고향, 아르바이트했던 장소, 자주 갔던 식당 및 카페, 여행 갔던 곳 등을 투어로 다니는 것을 말한다.

일상에서 뜻깊은 경험을 함께 할 수 있는 대체불가능한 활동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성은혜·이한아름·배소영, 2021; 이한아름·성은혜·배소영, 2022; Stebbins, 2007).

> 나의 다양한 욕구를 대부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고 나의 가수가 신인 무명 시절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끝없이 팬들을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모습은 제가 닮고 싶은 멘토의 모습이고 평생을 팬과 가수로서 함께 하고 싶은 존재예요. (참여자A)

> 가수는 방송을 많이 하는 스타도 아니고. 예능에 최적화된 사람도 아니지만, 시대를 초월한 어떤 우주를 만드는 것 같아요. 자신의 재능을 믿기보다 완벽한 연습벌레이고 겸손하며 받은 것보다 더 베푸는 선행의 아이콘이에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를 몸소 보여주었고 나에게는 별빛 같은 우주 같은 존재예요. (참여자C)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트로트가수 팬덤활동에 참여하는 기혼 중년여성들의 경험이 전환기적 생애 과정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 트로트가수의 팬클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4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에 이르는 여성 참여자 10인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이들의 팬덤활동 경험과 다양한 변화, 전환기적 삶의 의미에 대해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와 관련된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의 팬덤활동 참여 양상은 개별적 활동을 넘어서서 가족 프로젝트로 확장되고 있었다. 주기적인 팬카페 방문을 통한 정보 수집, 음원 스트리밍, 가수 순위를 올리기 위한 온라인 투표 참여, 온라인 티켓 구매 과정에서 가족의 조력이 뒷받침되고 있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과 함께 콘서트에 참여하고 공통된 관심을 나누게 되면서 가족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팬클럽 활동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의 공감과 이해가 동반되었을 때 가족관계가 긍정적으로 개선되었음을 보여주는 기존 연구결과와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김진하·김민지, 2022). 기존 연구에서는 자녀가 성장한 이후 참여하는 팬클럽에서의 충성도가 가족관계 개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를 기반으로 우울이 감소하며, 중년여성의 빈둥지증후군도 긍정적으로 개선됨을 보이고 있다(김태연·김동심, 2021). 중년기는 남편, 부

모, 자녀와의 관계가 재조정되어,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는 시기이다. 자녀 성장과 독립으로 새롭게 주어지는 자유시간은 중년 기혼여성을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탐색의 시간이 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지지는 스트레스를 완충시키는 매개변수로 작용한다. 기존에 소원해졌던 가족구성원은 물론 사회관계망으로부터 받는 관심과 지지가 위축된 중년의 위기감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김세화·정혜윤·이승민, 2022; 이윤진, 2023; 장혜경, 2021).

한편, 자녀의 연령대나 여건에 따라 가족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변화할 수도 있다. 자녀의 연령이 어린 경우, 팬덤활동 몰입으로 자녀 돌봄이나 가사를 소홀히 하게 되어 남편들은 부인들의 팬덤활동을 지지하지 않았고, 팬덤 참여자들은 비밀리에 활동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하는 사례도 보고하고 있다(김송희·양동옥, 2013). 본 연구 참여자들 중에서도 팬덤활동 초기에는 여러 가지 바쁜 활동으로 가족에 관심을 덜 기울이게 되어 가족들의 불만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활동 참여 수준을 조절하여 가족과의 문제를 해소한 사례도 있었다.

둘째, 팬덤활동 참여는 연구참여자들의 여가 패턴을 개인적·수동적 향유자에서 적극적·사회적 활동 참여자로 이끌고 있었다. 여가 시간에 단순 TV시청을 주로 하던 참가자들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시청한 뒤 해당 가수에 심취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팬카페 가입, 지역 모임 참여 등 적극적이고 진지한 여가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 중년들의 경우 매체 활용에 능하고, 온라인 참여가 보편화되면서 팬카페 활동에 대한 거부감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온라인 참여는 다시 오프라인 지역모임 등으로 이어지면서 이들의 여가 패턴은 수동적 활동에서 적극적 참여자로 전환을 맞게 된다. 일반적으로 소극적 여가의 경우 삶의 질에 부정적으로 연관되고 적극적 활동은 긍정적 삶과 연관되는 것으로 설명된다(서우석, 2023; Holder, Coleman & Sehn, 2009).

즉, 즐거움과 유희를 위한 단기적 일상적 여가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의 방식으로 전환되며, 사회적 유대 형성 및 사회참여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같은 가수를 좋아하는 팬들과 교류집단을 만들어 사회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소속감과 유대감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사회적 연대는 다시 적극적 사회 참여자 역할 수행의 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좋아하는 스타의 선행에 대해 공감하여 적극적으로 기부와 봉사를 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기존 연구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하는데, 팬덤은 구성원 개개인에게 소속감을 제공할 뿐 아니라, 구성원들 간 사회적 상호작용을

도모하며, 개별 차원의 관심은 취향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연대적 관계 및 집단화 양상을 띠는 참여 문화로 변모하게 된다(이한아름·성은혜·배소영, 2022; Jenkins, 2000).

팬덤활동 참여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중년학습자들의 성인학습 후 경험하는 변화와도 유사한 점을 지닌다. 예컨대, 중년여성들은 평생학습이나 전환학습 참여 후 사회 관계망의 확장을 경험하며, 사회적 역할을 찾아 자원봉사 및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능동적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이 보고되어 왔다(김세화·정혜윤·이승민, 2022; 김유정·박진영, 2019; 손선연·이희수, 2023; 이윤진, 2023). 이러한 차원에서 일상적 관심과 즐거움의 추구에서 시작된 개인의 팬덤활동은 대안적 사회공동체의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긍정적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팬덤활동 과정에서 심리·정서의 전환을 경험하게 된다. 팬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중년기에 느껴왔던 침체감과 무력감에서 벗어나 삶의 활력소를 찾게 되었으며, 스타 가수를 향한 에너지 발산을 통해 빈둥지증후군을 개선한 사례도 있었다. 그리고 스타 가수의 역경 극복 스토리와 선행을 공유하며, 스타 가수를 멘토 삼아 동일시함으로써, 새로운 삶의 지향점을 찾아가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중년여성들이 삶의 침체기나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팬덤문화 수용을 통해 관계를 확장하고, 새로운 지식을 쌓으며, 적극적이고 활기찬 모습으로 정체성을 재정립하고자 한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김진하·김민지, 2022).

특히 중년기는 심리 내적으로도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실현의 욕구가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곽삼근·조혜선·윤혜경, 2005; 박태경·박재연, 2019). 이러한 생애주기적 특성과 함께 안정적인 노년기 진입을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이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중년기 기혼여성들의 건강한 전환기 모색을 위해 계획된 프로그램이나 성인 학습 참여에 대하여 강조한 바 있다. 공식적인 프로그램 참여 과정에서 중년여성들은 생애사건을 공유하고 적절한 미래 대안을 모색하기도 하였고,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는 전략들을 습득하고 있음을 보인다(박태경·박재연, 2019; 손선연·이희수, 2023; 이주연·송성숙, 2021). 그리고 개인 차원의 대응보다는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나 집단활동, 동아리 차원의 활동이 보다 효과적임을 보고하고 있다(김유정·박진영, 2019). 하지만, 기존 연구들에서는 명시적이고 의도적인 교육목적의 프로그램 적용의 효과를 제시하는 반면, 자발적이고 유희적 여가 차원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팬덤활동은 오락과 즐거움을 기반으로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여가활동임에도 성인학습 프로그램 참여 효과와 유사한 측면을 보이고 있다. 그에 따라 중년여성이 참여하는 팬덤활동은 건강한 노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중장년여성의 생애주기에 대한 이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접근과 지원 방안 모색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대두하고 있다(김미정·김귀분, 2013; 손선연·이희수, 2023). 이러한 과정에서 성인학습이나 바람직한 여가 참여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팬덤활동이 성인학습과 진지한 여가의 긍정적 효과를 공유하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중년여성들이 건강한 생애 전환기를 보내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경력 회복이나 평생교육 기반의 학습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의 수요나 관심사를 폭넓게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김세화·정혜윤·이승민, 2022). 반면에 일상생활에서 오락과 즐거움을 위해 접하게 되는 대중문화적 요소들은 어렵지 않게 중년기의 관심사에 부합하게 되며, 매체 활용의 일상화에 기반하여 자연스러운 방식의 참여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참여가 궁극적으로 긍정적 생애 전환기 모색에 기여하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팬덤활동이 중년기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결과에 기반하여 향후 사회적 차원에서도 건강한 노년기 준비를 위한 다양한 여가 문화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유미래·안성아, 2023).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언과 한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트로트가수 팬덤에 참여하는 기혼 중년여성들로 그 대상을 국한하였기 때문에, 트로트가수가 아닌 타 장르의 스타나 아이돌 팬덤에 참여하는 중년여성들의 경험과는 차별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이돌 팬덤에 참여하는 중년여성들의 경우 10대와 20대 청소년층과 함께 팬덤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줌마팬덤'등으로 불리며 혐오나 배제의 대상으로 배타시되는 측면도 보고되었다(조해인, 2021). 반면에 본 연구의 팬덤은 홀어머니와 생활하며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고 스타로 부상한 트로트가수에 대한 팬덤이기에 중년여성들로 하여금 보다 모성을 자극하는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에 따라 다양한 가수나 스타를 추종하는 중년여성 팬덤문화에 대한 사례연구가 수행되어 생애 전환기 경험에 대한 이해를 넓힐 필요성이 제기된다. 성별이나 연령대에 따른 팬덤활동의 독특성과 보편성에 대한 이해를 넓힘으로써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한 이행을 위한 지원 방안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팬덤활동을 하고 있는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었기에 함께 팬덤활동을 하는 참여자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다는 맥락 안에서 심층

적 대화를 끌어내어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었던 반면, 팬덤활동의 부정적 측면보다는 긍정적 측면이 부각되었을 수 있다. 그리고 팬덤활동의 긍정적 측면 부각과 관련해서는 중년기라는 생애주기의 특성이 반영되었을 수 있다. 중년기의 심리사회적 특징은 양 극단을 지양하며, 대립적 경향을 화해시키는 내적 조화를 추구하는 시기라고 하였다(Levinson, 1996). 이러한 경향은 팬덤활동이 가족이나 개인적 삶을 침해하는 극단으로 치닫는 경향에 대해 나름대로 조화와 절충을 시도하는 전략을 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간혹 보도되는 중년여성의 팬덤활동 참여의 부작용이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사례도 드러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팬덤문화는 청소년이나 청년 세대와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노정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여가문화 연구의 지평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투고일 : 2024년 4월 27일 ■ 심사일 : 2024년 6월 6일 ■ 수정일 : 2024년 6월 11일 ■ 게재확정일 : 2024년 6월 12일

참고문헌

강보라·서지희·김선희(2018). “20대 여성 팬덤의 감정 구조와 문화 실천: 프로듀스 101 시즌2 팬덤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제33권 제1호. 5-50.

강숙영·김승일(2018). “중년여성의 무용 활동을 통한 삶의 균형 분석”. **한국무용학회지**. 제18권 제2호. 27-34.

곽삼근·조혜선·윤혜경(2005). “생애주기별 성역할 발달 및 갈등”. **한국여성학**. 제21권 제2호. 147-179.

국가통계포털(2023).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 2021**. 시도별 연령별 성별 일반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 결과(기분상태 및 우울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0&tblId=DT_35007_N1180&conn_path=I2 에서 2024. 02. 22 인출.

김금순·홍경선(2019). “중년기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이 자기개념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제10권 제2호. 987-1001.

김미정·김귀분(2013). “중년과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 영향요인”. **동서간호학연구지**. 제19권 제2호. 150-158.

김세화·정혜윤·이승민(2022). “중년여성의 전환학습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연구”. **교육문화연구**. 제28권 제1호. 385-417.

김송희·양동옥(2013). “중년 여성들의 오디션 출신 스타에 대한 팬덤 연구: 팬심의 구별짓기를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제25권 제1호. 36-70.

김수아(2011). “남성 아이돌 스타의 남성성 재현과 성인 여성 팬덤의 소비 방식 구성.” **미디어, 젠더 & 문화**. 제19호. 5-38.

김애순(1993). “중년의 위기감(3): 개발성향과 직업, 결혼, 자녀관계가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제13권 제2호. 1-14.

김유정·박진영(2019). “중년여성의 평생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한 전환학습경험 탐색”. **평생교육·HRD연구**. 제15권 제4호. 137-172.

김정은(2020). “중년여성들의 콘서트 관람이 여가생활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이벤트컨벤션연구**. 제6권 제4호. 151-166.

김진하·김민지(2022). “팬덤 문화 수용을 통한 중년여성의 정체성 재정립 경험”. **인문사회21**. 제13권 제5호. 135-150.

김태연·김동심(2021). “중년 기혼여성의 팬클럽 충성도와 우울 간의 관계 연구”. **인문사회21**. 제12권 제3호. 17-32.

나은경(2020). “미디어 팬덤의 심리학: 아무나 팬을 가진 시대, 숭배에서 친밀감으로”. **사회과학연구**. 제33권 제1호. 139-168.

문상정·박상훈(2022). “중년기 여성의 심리적 위기감과 심리적 웰빙, 속박감의 구조적 관계: 여가경험은 심리적 완충효과가 있는가?”. **관광레저연구**. 제34권 제12호. 287-307.

박순희(2022). “중년여성의 위기감, 가족기능, 나이 듦에 대한 태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제13권 제1호. 389-402.

박태경·박재연(2019). “중년기 기혼여성의 자기실현증진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제103권 제4호. 61-89.

서우석(2023). “청소년과 여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편). **청소년문화론**. 서울: 교육과학사. 223-254.

성은혜·이한아름·배소영(2021). “신중년 여성의 여가로서의 팬덤활동과 사회적지지, 삶의 의미 간의 구조적 영향관계 연구: 내일은 미스터트롯 팬덤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제45권 제8호. 81-104.

손선연·이희수(2023). “중년기 기혼여성의 생애사건 인식과 시간관리교육 경험의 의미 탐구”. **평생학습사회**. 제19권 제1호. 68-96.

손지원(2015). **중년여성의 생활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명자(2013).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유기웅·정종원·김영석·김한별(2018).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박영스토리.

유미래·안성아(2023). “중장년 기혼 여성의 팬덤활동에 미치는 가족의 영향 연구”. **문화와 융합**. 제45권 제2호. 467-481.

유지연(2020). “허구와 현실을 오가는 은밀한 공동체로서의 온라인 팬덤 사례 연구”. **문화콘텐츠연구**. 제18호. 77-116.

이려화·이희수(2021). “중년 여성의 학습경험 탐색 연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동을 중심으로”. **평생학습사회**. 제17권 제3호. 33-57.

이민영·이유우·한주희(2015). “문화예술 활동과 중년 여성의 심리적 웰빙: 스트레스와 성격의 조절적 매개역할”. **여가학연구**. 제13권 제4호. 1-24.

이보람·이정화(2014). “중년기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경험과 몰입정도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25권 제3호. 349-361.

이시은·김진경·김분한(2015). “중년 여성의 건강과 생활인식에 대한 주관성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6권 제7호. 4786-4797.

이윤진(2023). “생애 전환기 중년학습자의 평생학습 경험에 대한 질적 메타분석”. **교육문화연구**. 제29권 제6호. 97-122.

이재원(2021). “엄마와 딸은 왜 함께 팬 활동을 하는가? 모녀간 팬덤 공동체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제35권 제2호. 68-97.

이주연·송성숙(2021). “중년여성의 연극단 활동에 나타난 일상의 학습경험 탐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21권 제12호. 803-819.

이진희·이상희·허진무(2020). “진지한 여가로서의 성인 발레 참여경험과 삶의 질”. **한국여성체육학회지**. 제34권 제2호. 65-88.

이한아름·성은혜·배소영(2022). “중장년 여성의 진지한 여가로서의 팬덤참여가 지니는 내재적 의미와 역할: 임영웅 팬덤 ‘영웅시대’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제46권 제8호. 105-129.

임미정·최규석(2022). “오팔세대의 라이프 스타일과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제8권 제6호. 59-65.

장혜경(2021). “중년후기 성인의 건강상태, 노화불안, 사회관계망, 생성감 및 행복”.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27권 제4호. 392-401.

정민우·이나영(2009). “스타를 관리하는 팬덤, 팬덤을 관리하는 산업.” **미디어, 젠더 & 문화**. 제12호. 233-234.

정옥분(2019). **성인·노인심리학**. 서울: 학지사.

정윤지·최명경·이준성(2022). “중년 여성 발레 참여자의 신체 및 정서적 변화와 진지한 여가 형성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한국여성체육학회지**. 제36권 제4호. 77-98.

정재민(2010). “청소년 팬덤 현상에 대한 근거 이론적 접근.”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3호. 91-119.

조해인(2021). “20대 팬덤은 ‘줌마 팬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국내 아이돌 팬덤 내 위계 형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제22권 제1호. 116-164.

최유나(2007). **아줌마, 팬이 되다**.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허제은·태영숙(2014). “중년여성의 영적 안녕,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성인간호학회지**. 제26권 제2호. 191-190.

Brown, C. A., McGuire, F. A., & Voelkl, J. (2008). The link between successful aging and serious leisur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66(1), 73-95.

Burt, V. K., & Stein, K. (2002). Epidemiology of depression throughout the female life cycle. *The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63(7), 9-15.

Carstensen, L. L. (1992). Social and emotional patterns in adulthood: support for 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 *Psychology and Aging*, 7(3), 331-338.

Coleman, D., & Iso-Ahola, S. E. (1993). Leisure and health: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self-determin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5(2), 111-128.

Creswell, J. W. (2013).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Chooing Among Five Approaches*. Sage Publications.

Erikson, E. H. (1968). Life cycl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s*, 9, 286-292.

Farrell, M. P., & Rosenberg, S. D. (1981). *Men at midlife*. Boston: Aubum.

Gould, R. I. (1978). *Transformations: Growth and Change in Adult Life*. New York: Simon and Schuster.

Heo, J., Lee, Y., McCormick, B. P., & Pedersen, P. M. (2010). Daily addiction and dyadic adjustment. experience of serious leisure, flow and subjective well-being of older adults. *Leisure Studies*, 29(2), 207-225.

Holder, M. D., Coleman, B., & Sehn, Z. L. (2009). The contribution of active and passive leisure to children's well-being.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4(3), 378-386.

Jenkins, H. (2000). Star Trek rerun, reread, and rewritten: Fan writing as textual poaching. In H. Newcomb (Ed.), *Television: The critical view*(6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470-494.

Jensen, J. (1992). Fandom as pathology. In L. A. Lewis (Ed.), *The Adoring Audience: Fan Culture and Popular Media*. Routledge, 9-29.

Kim, J. & Kim, J. H. (2014). A facilitator of leisure activities for stress-related growth experience among middle-aged Korean women with depression.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35(11-12), 1245-1266.

Levinson, D. J. (1978). *The seasons of a man's life.* New York: Alfred Knopf

Levinson, D. J. (1996). *The seasons of a woman's life*. New York:

Alfred Knopf.

Liechty, T., Yarnal, C., & Kerstetter, D. (2012). 'I want to do everything!': Leisure innovation among retirement-age women. *Leisure Studies,* 31(4), 389-408.

Logan, R. D. (1986). A reconceptualization of Erikson's theory: The repetition of existential and instrumental themes. *Human Development*, 29(3), 125-136.

Merriam, S. B. (2009).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to design and implementa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Mezirow, J. (1991). *Transformative dimensions of adult learning*. San Francisco, New Jersey: Jossey-Bass.

Rosenberg, S. D. & M. P. Farrell (1976). Identity and crisis in middle aged man.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7(2), 153-170.

Schlossberg, N. K. (1987). Taking the mystery out of change. *Psychology Today*, 21(5), 74-75.

Siegenthaler, K. L., & O'Dell, I. (2003). Older golfers: Serious leisure and successful aging. *World Leisure Journal*, 45(1), 45-52.

Stebbins, R. A. (1982). *Serious leisure: A Conceptual statement*. Pacific Sociological Review, xx(x), 251-272.

Stebbins, R. A. (2007). *Serious leisure: A perspective for our time*.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Abstract

Participation in the Fandom Activities of a Trot Singer by Married Middle-Aged Women and the Exploration of the Meaning of Life During Transitional Periods of Life

Hye-kyong Lim*·Hye Won Kim**·Hye-Young Jo***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experiences of married middle-aged women who participate in fandom activities of a trot singer, exploring the changes they undergo during their midlife transition and their significanc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en middle-aged women ranging from their forties to sixties, and content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a repetitive comparative method.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fandom activities of middle-aged women expanded from an individual level to family projects, contributing to positive changes in family relationships. Second, participation in fandom activities led the participants to transition from passive individual enjoyment of leisure to active participation in group activities. Fandom activities acted as a driving force for social relationship formation and social engagement. Finally, fandom activities served as a source of vitality in life, contributing to personal psychological and emotional changes such as alleviating empty nest syndrome and fostering the identification with mentors. Based on these results, recommendations for further discussions and subsequent research are provided.

Keywords : middle-aged women, fandom activities, life transition period, life, meanings

* First Author: Professional Counselor, Student Counseling Center, Hannam University

** Co-Author: Associate Professor,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24년 2호
(통권 121호)
여 성 연 구

발 행 인 김 종 숙
편 집 인 이 택 면
등 록 일 1983년 11월 23일
등록번호 바-813
발 행 일 2024년 6월 30일
발 행 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25 (불광동 1-363)
TEL. 02)3156-7000(代) FAX. 02)3156-7007
인 쇄 처 리드릭 TEL. 02)2269-1919

『여성연구』 2024년 3호 논문 공모 안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여성연구』는 성평등 및 여성정책 관련 기초이론 및 관련 이슈를 탐색하고, 현안 해결에 기여할 연구성과를 소개하는 학술지입니다. 『여성연구』에 게재되는 논문은 연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여성연구』 2024년 3호 (통권 122호)에 게재할 우수한 논문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1. 게재논문 내용

여성문제 및 여성정책과 관련되는 학문분야의 논문으로서 학술 논문에 요구되는 형식과 체계를 갖춰 작성된 연구 논문에 한합니다. 단,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독창적인 내용이어야 합니다.

2. 『여성연구』 투고요령

원고분량은 인쇄쪽수 20쪽(200자 원고지 120매 해당) 이내(요약 포함)로 하되 최대 30쪽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고 편집 기준 및 자세한 내용은 『여성연구』 논문작성요령을 참조해야 합니다.

3. 투고자격

성평등 및 관련 정책 연구 전문가

4. 발행예정일 및 논문 마감일 논문접수 일정 및 관련사항

권호	발간예정일	논문접수 마감일
통권 122호	2024. 9. 30.	2024. 7. 31.

-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호에 게재할 논문의 편수와 순서를 결정하며, 경우에 따라 이월 게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논문접수 기간 이후 접수된 논문의 경우, 다음호로 심사가 이월될 수 있습니다.

5. 논문제출방법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https://kwdi.jams.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직접 논문 투고

6. 논문관련 문의

전화 : (02) 3156-7288 E-mail : journal@kwdimail.re.kr

KWDI

The Women's Studies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25
TEL : 02-3156-7000 • FAX : 02-3156-7007
홈페이지 : http://www.kwdi.re.kr